

Russia Policy Review
ISSN 2586-100X

2019

Vol.3 | No.2 Summer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의 역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
'통(通)'하게 하라! : 한·러 수교 30년, 숨은 외교관 러시아어 통역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 전략
러·중 관계 : 실제와 전망
화폐시스템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9 3/4분기까지
러시아 최신 상품·서비스 시장 발전 동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ussia Policy Review

2019

Vol.3 | No.2 Summer

『러시아 폴리티시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선별한 자료를 번역해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9호 2019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V.V. Mikheev(MEMO)

S.D. Valentey(PRUE)

김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간사)

번역위원 / 서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환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환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의 역할

올레그 다비도프 | 3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

올레그 다비도프 | 7

‘통(通)하게 하라! : 한·러 수교 30년, 숨은 외교관 러시아어 통역사

방교영 | 1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전망

올레그 다비도프 | 19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 22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 전략

바실리 미헤예프 | 25

러·중 관계 : 실제와 전망

바실리 미헤예프 | 30

화폐시스템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세르게이 발렌테이 | 36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9 3/4분기까지

세르게이 발렌테이 | 45

러시아 최신 상품·서비스 시장 발전 동향

세르게이 발렌테이 | 49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의 역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
'통(通)'하게 하라! : 한·러 수교 30년, 숨은 외교관 러시아어 통역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 전략
러·중 관계 : 실제와 전망
화폐시스템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9 3/4분기까지
러시아 최신 상품·서비스 시장 발전 동향



『러시아 폴리시 리뷰』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에 제대로 접근할 기회가 없는 국내 정책연구자들과 러시아 연구자들에게 러시아 이너씨클의 시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선별한 자료를 번역해 발간하는 정책저널입니다.

발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7년 7월 러시아 최고 싱크탱크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와 공동으로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지금까지 계간지로서 총 7회 발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약 3,500명, 오프라인으로 약 500명의 연구자/기관들이 저널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8호부터는 1907년에 설립된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PLEKHANOV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세 기관 이름으로 공동 발간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폴리시리뷰』 편집위원 일동



이 저널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9-1-B00005)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의 역할

올레그 다비도프



출처 : Used image from youtube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것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핵심은 이 만남이 김정은의 첫 러시아 방문이라는 점뿐만 아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되고, 작년에 매우 급격하게 진전되던 남북 관계도 긍정적 역동성을 상실하였을 때, 그 방문이 성사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합의 당사자

인 북미가 서로 대립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할 생산적 구상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대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핵 문제 조정이라는 주제는 4월 25일 열린 러·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전문가 중 누구도 양국 정상의 첫 만남 이후 공동 전략이 합의

되거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 행동 계획이 제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과제는 처음부터 상정되지도 않았다. 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 성명이나 합의문 채택도 없었다. 반면 빈번한 상호회담, 한반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확보, 비핵화 프로세스 등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양국이 행동을 함께하자는 논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결과였다.

이렇듯 김정은의 방문과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다방면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 문제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됐다. 그 메시지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해 당사국 차원을 넘어 작금의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음모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평화 프로세스에 활기를 부여하는 창의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빨리, 회담 참가국들이 자신들 앞에 제기된 과제들을 이해하고 향후 과제들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서 그 과제들의 핵심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잠재력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제거하고 북한 측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른 국가들이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핵탄두, 우라늄 농축과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설비, 핵분열성 물질 저장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를 거부한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북한은 비핵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비핵화 이행 보장합의를 수행해 가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요구들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이 모든 요소들은 이전에 북한의 참여 하에 합의됐던 것이고 오늘날 까지도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문서들에 포함된 것들이다. 우선 이것은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 상대국들의 공동 성명에 포함돼 있다. 또한 1992년에 이미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선언에도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북한이 그 첫 번째 행보로서 과거 자국에 부과됐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핵 문제를 둘러싼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 러시아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거해 북한에 가해진 국제적 제재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한다는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녹녹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광범위하게 가해진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잔인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옳은 말이다. 러시아도 극단적으로 위험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일련의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제한적 제재'에 대해 찬성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극단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명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유엔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안보리 제재를 지금까지도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들의 음모'라고 부르면서 제재 준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 야욕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 ‘핵 강국’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는 불확실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러시아)는 서로를 공동의 이해로 연결함으로써 중요한 국제적 과제, 지역적 과제, 그리고 양국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 국가이자 좋은 파트너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러시아는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의 기탁국으로서 러시아는 중국, 미국, 그리고 ‘핵클럽’의 다른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국제안보라는 현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적, 지역적 핵확산금지체제를 지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러시아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문제들을 상대국들과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와 동시에 극동 지역에 동기와 의도가 결코 투명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호전적인 ‘핵 이웃’이 인접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군사적 측면의 위협성 외에도, 자국의 핵 잠재력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권위주의 체제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신호는 다음과 같이 읽히게 된다. 만약 적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강대국들이 당신을 상

대하길 원한다면 미사일과 핵무기를 제조하라.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지구상에 퍼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위협은 기술적 사고와 그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핵미사일 무기가 기술공학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고립된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관계로 북한이 기존에 해왔듯이 복잡한 군사문제를 자력 자강의 힘으로 속도전을 펼쳐서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핵무기의 생산, 보관, 사용 조건들을 위반할 것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이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시한 폭탄 지뢰를 부설하는 것과 같다. 핵 복합체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북한과 접경한 나라들에게 비극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무기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와, 현재 발효 중인 휴전협정에 대신에 효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에 맞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복잡한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러시아, 북한, 남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국들이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은 러시아 측이 성사된 회담의 결과에 대해 중국과 미국에 통보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현재 접근 태도를 상대국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음량조절기’들 중 하나

로서 러시아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다자간 대화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번역 : 김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loveruli@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Россия укрепляет свою роль в мирно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4월 27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

올레그 다비도프



photo from The White House // www.flickr.com/photos/whitehouse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백악관의 낙관적 예측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진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높아진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은 아무런 결과 없

이 끝이 났다. 회담이 결렬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의 수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치게 적은 값’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기를 원한’ 것 같아서 계획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미국 측의 보상 문제가 회담의 주요 주제였다.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측 간의 대립이 의미하

는 바는 분명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신에 북한의 군사적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도입된 최고 수준의 국제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부분적 거래’를 거부했다. 그는 북한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위험한 핵 제조 시설을 폐기할 것을 선언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의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간략하지만 많은 약속이 담긴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그 선언문에 따라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됐다. 그 당시 이 구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 로드맵이 다음 회담에서는 작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합의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이후의 진척은 없었다. 북한이 일련의 과시적인 행보를 취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이전에 선언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모라토리엄을 철저히 준수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선언했으며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일부 해체했다.

그러나 국제음서버들의 견해는 회의적이다. 북한의 이런 조치들이 유익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이것을 핑계 삼아 자국의 핵·미사일 잠재력을 감축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이 능숙하게 ‘회담의 휴지기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했다.

미국 정보당국의 수많은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에도 계속 핵분열 물질(무기급 플루토

늄과 고농축 우라늄)과 핵탄두와 미사일 무기의 생산을 늘렸다. 또한 비밀리에 대량과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민간 시설도 포함한 많은 소규모 시설에 분산시켜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 시그프리드 헤커의 정보에 따르면, 2018년에 북한은 핵탄두 5~7개를 더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생산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상당히 모호한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부재가 미국과 북한 간에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였다. 미국은 이것을 북한의 핵 생산시설, 핵탄두, 핵분열 물질을 포함한 핵 잠재력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겼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관련 시설을 발표하고 그것들의 해체 시간표를 제시하고 이 과정을 검증할 타당한 매개변수에 합의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북 양국관계 정상화, 한반도에서 휴전 협정 대신 평화 체제 확립, 미국 측의 경제적 원조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북한 지도부는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것에 약간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채택된 합의문 내용에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인용하며, 북한은 미국 측의 ‘핵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 위협이 한국과 한반도 인접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펜타곤의 ‘전략 자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화 파트너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 모든 제재와 그 밖의 제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선동적 성격을 갖는 이러한 요구조건들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트럼프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진짜 의도에 대해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정보당국과 군 수뇌부, 상원의원들이 최근 몇 달간 한목소리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선을 긋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재의 ‘올가미’를 피하고 일방적인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북미대화를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핵 위협이 사라질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수많은 ‘희망적인’ 글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미 국가정보국 덴 코츠 국장은 올해 1월 말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대통령의 견해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온 힘을 다해 자국의 핵 무기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준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좀 더 후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필립 데이비스 사령관도 의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포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31일에 채택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관한 ‘아시아 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RIA)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행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매과’ 상원의원들

의 강력한 요구로 포함됐다. 특히 그 안에는 당국이 대북 대화 전략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공개하고, 대북제재의 해제를 결정할 경우 그러한 조치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됐다.

일의 본질과 관련된 이 모든 제약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타협적인 대화에도 달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전체적인 조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본질적인 양보를 얻어낸 북한 지도자의 끈질긴 우회 전략은 성공할 수 없었다. 이는 미국 측이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만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의 논평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실무급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판단하건대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지킬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1년 전 그는 모든 대북문제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선을 택했다. 이 노선은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도 의문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와 북한 독재자의 비정상적인 우정이 후자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사실 두 차례의 최고위급 회담 덕분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것도 희생하지 않고 ‘하층민’ 신분에서 벗어나 ‘승인된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

제적으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 하는데 성공했다.

달리 말하면 상황은 양면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시적인 전술상의 승리를 얻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마 이제 그는 국내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 알고리즘의 부재는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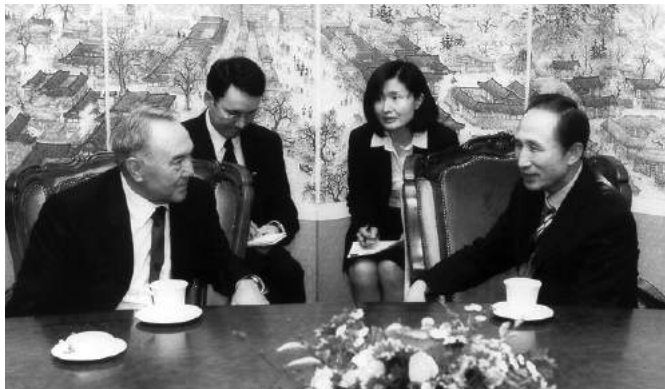
수준의 국제적 대북제재가 장기간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실제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대외 정치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잃게 된다.

번역: 김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КНДР–США: почему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в Ханое не увенчалась успехом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3월 4일)

‘통(通)’하게 하라! : 한·러 수교 30년, 숨은 외교관 러시아어 통역사

방교영



1.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으며

조선 후기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첫 만남은 좋았던 것 같다. 1880년대 극동 러시아로 이주해 온 우리 선조들을 지켜보았던 러시아 관리는 “카레이스키(한국인)는 가족적이고 법을 잘 지키며 일도 잘하고 성실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정보원들을 교육시켰던 지리학자 니콜라이 프제발스키 또한, “내가 아는 바, 예절, 일, 협동성은 카레이스키가 공통으로 가진 모습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인보다 훨씬 낫다”고 했

다. 러일 전쟁이 벌어져 한국의 독립이 점차 요원해질 때까지 한국인은 ‘바른 민족’(desirable people)이라는 평가가 그곳에 있었다.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도 러시아에게는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바깥의 모든 외세를 믿지 말자고 했지만 영국, 일본, 프랑스에 비하면 러시아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실제로 더 나았다.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했을 만큼 정부 간 믿음도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러·한, 한·러 친선의 역사를 멈추게 했고,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분단으로 내몰았다.

한국과 러시아가 다시 만난 때는 1990년 무렵이었다.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후 소련이 해체되던 어려운 시기였다. 소련이라는 적성국의 존재를 잊은 듯, 러시아에 대한 옛 기억이 솟아오르는 듯 한국인은 다시 러시아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무엇보다 경제 및 예술과 한국인 동포에 관심이 많았고 국내 여러 대학에 러시아 관련 학과도 만들었다. 하지만 직접 가본 러시아는 실망스러운 곳이었다. 가난이 러시아 전 지역에 밀어닥쳐 있었다. 러시아의 금융과 자원기업의 75% 가량이 재벌이라 불리는 올리가르히에게 독점됐으며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GDP와 산업생산량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투자는 90% 감소했으며 인구는 6백만 명이 줄고, 러시아 남성의 기대수명은 57세로 떨어졌다. 한국인에게 러시아는 미래가 없는 듯이 보였다. 부푼 기대로 시작된 두 번째 만남은 그렇게 흐지부지돼 갔다.

그 사이 러시아는 경제적 어둠의 긴 터널을 서서히 뚫고 나갔다. 푸틴이 대통령으로 등장한 2000년대의 러시아는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된 자국의 석유, 가스 산업을 본국으로 가져왔다. 자원의 대부분이 러시아 기업 중심으로 개발됐으며 내수도 안정됐다. 수출자원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과 중화학 공업을 든든하게 끌어갔다. 현재, 유럽과의 거대한 교역이 예상되는 북극항로 개발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육지 쪽으로는 과거 CIS 국가들과 공동경제 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금융 스와핑을 통해 통화위기에 대처했으며 루블/위안 교역을 늘려가면서 웬만한 달러 위기에도 견뎌낼 수 있도

록 체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5% 이하이다. 러시아는 더 이상 1990년대의 러시아가 아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한국도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극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 또한 신(新)북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세 번째 만남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만남이 가벼운 데이트 수준이었다면, 세 번째 만남은 진지하게 선을 보는 자리와 같다. 역사상 처음으로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이 매우 깊고 진지하게 상호 조율되고 합쳐지고 분절되는 역사를 그리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번의 만남이 모두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통역이 그것이다.

2. 통(通)하지 못했던 한 때의 기억

역사상 전혀 교류가 없던 나라라 해도 그 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지는 않다. 번역을 통해서다. 소련, 인도, 쿠바 같은 나라와 전혀 교류가 없던 냉전 시절, 우리는 번역물을 통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러시아 문학 번역을 통해 갈 수 없는 신비로운 나라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 상상은 있어도 얼굴을 마주한 ‘통(通)함’은 없었다. 직접 만나 서로를 알고 느끼는 대면 통역과 대화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와 정부, 사회와 사회 간의 교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통역이 만남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국에

는 러시아 통역 전문가가 아주 적었다. 반면 소련 측의 러시아어-한국어 통역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련 대표단으로 서울에 도착한 선발대 통역사 안드레이 란코프(현, 국민대 교수)가 그 예였다. 그는 동아시아 전문 학자였으며 극동러시아의 한국인에 대한 연구성과도 가지고 있던 한국통이었다. 북한식의 어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한국어는 훌륭했다. 러·한 통역의 언어학적 자질과 그에 따른 배경 지식도 출중했다. 1990년 초 레닌그라드 아이스발레단 수행 통역으로 왔던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역사학부 교수도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과 함께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90년 초 우리 정부는 북방외교를 통해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했다. 그런데 러시아 통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는 어땠을까. 우리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 통역사를 찾ند다고 부랴부랴 미국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S모 교수를 초빙했다. 아뿔싸 이는 마치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주석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일본대학 출신 중국 문학 전공자를 부른 것과 같다. 게다가 전문 통역인이 아니었다는 점부터 정상회담 통역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S모 교수는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당황했고 문맥을 읽지 못해 통역을 놓쳤다. 통역의 기본인 일인칭 화법도 지키지 못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눈치챈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통역 의전을 어기고, 당시 소련 측 유학구 통역사에게 쌍방 통역을 요구했다. 이에 S모 교수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전한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어 통역을 잘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고작 미국 교수였던 것이다. 이에 한국 언론도 등을 돌려 버렸다. 당시 한국의 청와대에는 이미 국내 유일한 통번역 전문기관인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출신 김근식 교수가 러시아어 문건을 번역하고 한소 교류의 중요한 통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러시아어 통역사였고 한국의 눈으로 러시아를 바라보는 한국인이기에 애국심도 깊고 러시아와의 민감한 역사적 문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통역사를 보유하고도 문학 전공의 미국 출신 교수를 부른 우리 정부의 이상한 선택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사대주의와 통역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적 문맥을 놓치고 러시아를 만나면서도 미국을 먼저 상상했던 것이다. 또한 문학전공 학자와 통역 전문인을 구별하고 평가할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자국 통역사와 자국 교육기관의 얼굴에도 먹칠을 한 셈이 된다.

러시아와 외교 관계 초기에 벌어진 이 통역 스캔들 이후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외교부 내 대통령 통역사는 이석배 외교관으로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통역의 만사를 처리해냈다. 이석배 통역사는 VIP들의 화법의 특징, 나아가 전문영역별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리했고 이를 후배 통역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분이 바로 현재 주러 한국대사이다. 이처럼 통역은 한 국가의 자존심과 대표성, 외교의 문맥, 애국심, 인문적 능력과 순발력, 통역사의 인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소통의 마술사가 하는 일이다.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바꾸는 기계가 아니다.

3. 고르바초프가 알려준 통(通)함의 교훈

필자는 91년 4월 제주도 한소정상회담 이후 2001년까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수행통역, 순차 및 동시통역을 수행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냈고, 소련의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는 점진적인 시장 자유화를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적 개방을 위한 ‘글라스노스트’를 내세웠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사회로 넘어가는 러시아의 뼈아픈 시절을 주도했다. 그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그만큼 그에게 거는 러시아 국민의 기대도 컸다. 그가 방문했던 나라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이중의 스트레스를 안고 고르바초프가 한국을 찾아 왔던 것이다.

당연했겠지만 그는 통역에 민감하고 까다로웠다. 한번 전한 메시지가 제대로 통역됐는지 확인했다. 자신의 발언이 제대로 통역되는지 알고 싶어했는데, 하물며 숫자나 나라 이름마저도 올바르게 통역되는지 파악하려 했다. 더 나아가 청중의 반응까지 관찰하고 그것이 긍정적인지를 확인했다. 그의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흥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제공한 연설문마저도 그대로 낭독하는 경우가 드물어, 통역사인 필자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2001년 11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강좌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의 주제 하에 그의 특강이 있었다. 필자는 어쩔사리 몇 시간 전에 특강 원고를 받아 통역 준비를 했다. 세계정세와 한반도 역사 및 현황을 아우르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특강 장소에 들어선 고르바초

프의 첫 발언은 “준비된 원고는 읽지 않겠어요”였다. 연설은 길고도 복잡했다. 새로운 용어와 표현을 만들어 필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알고 보니 그의 이런 화법 때문에 러시아어권 화자들에게서도 비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75년 동안 공산사회를 살다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설명하는 그로서 이런 화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결국 필자가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강연이 끝났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대단했다. 지금으로서는 세계를 움직인 역사적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웃음을 짓곤 하지만 그의 발언을 받아내기에 통역사의 고통은 너무 컸다. 발언은 물론, 목소리, 표정과 몸짓 모두 강렬했다. 주변을 지배하는 강한 힘이 있었다. 필자는 이 강한 톤을 따라가야 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면 부드러운 톤으로 내려온다. 특히 그의 부인 라이사 여사와 함께할 때나 혹은 사적인 코멘트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만들어 내고 질문을 받아치는 그의 순발력이 참으로 놀라웠다. 이런 자리에서 톤은 고사하고 단어 선택부터 다르게 해야 했다. 창의적인 사람의 언어야말로 가장 통역하기 어려운 법이다.

2001년 11월 한국외대에서 벌어진 정치학 명예박사 수여식에서도 그는 농담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농담이라는데 청중이 웃지 않으면 어찌하나. 식은땀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농담한 사람이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이 청중의 웃음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일 오래된 직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답은 ‘정치인’이었다. “인류의 선조인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든 의사보다도, 성경에 나

오듯이 태초에 혼돈이 있었는데, 이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이가 정치인이니 정치인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것이었다. 인간이 태초에 원죄를 지어 혼란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기독교관과 더불어 의사를 빚낸 사회주의적 상상력, 그리고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현재, 마지막으로 세계 정치를 흔들여 놓았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사중주로 엮은 농담이었다. 이 문맥을 잡아내는데 필자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그의 중의법을 익히 경험한 터라, 농담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었다. 청중의 폭소와 박수가 강연장을 뒤흔들었다. 다행이었다.

실로, 필자가 진정 통역사로 거듭난 때가 바로 이 10년의 기간 동안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정치인의 연설이라 한층 주눅 들어 있는 통역사에게 밀어닥친 고르바초프의 주문을 수백 차례 받아내면서 필자 스스로 성장했던 것 같다. 또한 그렇게 통역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윤리마저도 현장에서 알아갔다. 외교전선에 나서는 통역사는 스스로 외교의 문맥을 꿰는 외교관이 돼야 하고, 상대의 여론보좌관이 돼야 하며, 상대의 성격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사와 같은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카약을 타듯이, 흔들리는 물살에 자신을 맞추어 가야 했다. 기계적인 통역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역할이었다.

필자는 본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살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이끈 과도기의 소련이 결과적으로 경제와 정치의 여러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 조용한 영부인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난 라이사 여사의 정치적 간섭도 있었다는 점, 이런 일들을 소련 및 러시

아 사회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 과오가 있었다. 이 과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오늘날 제 모습을 찾았다.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와 그의 부인 라이사 여사의 경험은 필자에게도 통역사로서의 모습을 찾는 기회였다고 믿고 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라이사 여사의 묘소를 찾았을 때, 젊은 시절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이후 방한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보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초췌해진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필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있다.

4. 한국 한·러 통역사의 위상과 역할

가장 상식적인 말이 가장 진실에 가까이 있듯이, 고통 없는 결실은 없다. 폭풍우와 같았던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전문통역사들이 상당수 배출됐다. 러시아 및 소련 국가들과의 외교 전선에서 이전에는 비어 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외교 업무 자리에 한국의 러시아 통역사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갔다. 대다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출신들이다. 이들이 현재에도 한국의 대러시아 및 옛 소련 국가 간의 소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고시 출신을 선호해 왔으며, 북미 부서를 중심으로 외교를 해왔다. 그러나 이런 전통은 다변화하는 세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한다. 일제 강점기의 군국주의적인 시험방식인 고시를 통해 세계 외교를 바라보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었다. 중국, 인도, 러시아가 부상하여 미국과 다시금 경

쟁 관계를 만들어 가는 현대의 외교환경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을 편다는 것도 국가의 운명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한국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압박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외교부가 저질렀던 크나큰 실수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변화하는 세계의 외교현장에서 국내 러시아어 통역사들은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때 13개 언어의 동시통역이 수행됐다. 이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였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 대표단만이 자국 통역사가 통역을 수행했다. 매년 개최되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의 경우, 2차 대회인 2016년 그리고 2017~2018년 3차, 4차의 통역을 모두 한국의 한·러 통역사들이 수행해 왔다. 대통령이나 장관 수행통역과 동시통역도 한국 측 한·러 통역사들이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냈다. 지난 2019년 4월 16~23일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튀르키예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의 통역사들이 자동적으로 참여했다. 이 지역은 신북방정책에 따른 공식 외교행보로서 경험의 의미를 크게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카자흐스탄이 선도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뒤를 따르고 있다. 남서쪽에 석유 등 자원 대국인 튀르키예니스탄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교 전선에서 한·러 통역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통역 의뢰와 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의 러시아어 통역학계는 발군의 위치에 서 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의 전담통역사를 배출했다. 외교 상대국 대통령 및 국가 통역사를 현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출한 것이다. 한·러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중 푸틴 대통령 곁을 지키는 통역사가 한국대학 출신임을 보며, 한·러 수교 30년을 맞는 한국 통역계의 노력과 그 결실을 새삼 느낀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외국어대학 교수들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통역 교수법 연수를 받았다. 러시아 튜멘 국립대학교, 카자흐스탄 국립대 등에서는 동시통역 교수요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옛 소련권 국가들에서도 러시아어가 제1언어로 통용되지 않는다. 러시아어와 자국어 혼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니스탄 등에서도 자국어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옛 소련권 국가들에서 자국어 지위가 차츰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어의 위상은 소련 시절과 비교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CIS 국가의 자국어 사용 추세는 통역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소련권 국가들 사이를 이어주는 전문 통역 인력이 러시아어를 포함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튀르키예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순방하는 동안 3개국 모두 자국어 전문 통역인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었다. 한국어-튀르키예니스탄어, 한국어-카자흐스탄어, 한국어-우즈베키스탄어 등 언어 쌍 모

두의 전문 통역인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상대국 VIP 발언까지 한국인 통역사가 양방향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상황을 지켜본 중앙아시아 3국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던 한국 측 동시통역사에게 전문 통역인 양성을 문의하고 요청할 정도였다. 이런 환경에서 볼 때, 옛 소련권 국가들에서 러시아어가 제2언어로서 외교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특히 통역교육문제에서 국내 러시아어 통역사의 역할이 당분간은 중요할 것이다. 2019년 5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주관한 전국러시아어토론회에서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또한 “글로벌 시대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문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통(通)함의 윤리: ‘말하되 말하지 않는다!’

소련 해체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어 통역사와 교육기관이 만들어 쌓아온 역사는 성공적이었다. 언어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의 규칙, 외교를 바라보는 인문 사회적 지식, 통역사의 현장업무, 의무와 권리, 시간 배분, 동시통역 부스의 활용, 스마트 기기 사용법, 연사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통역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윤리이다.

필자의 대학 강의 중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다. “정상회담, 양자회담 등 환담을 할 때 정상들은 어떤 말을 하나요?” 대답하기 전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이외에 정상들이 했던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했나요?” 학생들

은 영민하게도 이내 깨달은 듯했다.

필자는 정상의 개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특별한 말투, 제스처 등에 관해서 함구한다. 또 그렇게 통역을 가르치고 있다. 전문통역사는 “말하되, 말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윤리는 통역에 관계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역을 하되, 그 이외의 것은 ‘말하지 않는다’이다. 언론에 나온 공개된 발언 이외에 통역사는 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사실도 발설하지 않는다. 그것은 통역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통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는 통역사의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 그것이 통역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인 동시에 의무다.

통역사의 두 번째 윤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통역현장에서의 입장을 말한다. 통역 현장에서 양측 통역사 간 팽팽한 기 싸움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의 입장에 선다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예를 들면, 한국 통역사들에게 당분간 ‘KOREA’는 상당히 통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될 것인데, 한국, 남한, 북한, 조선, 북조선, 남조선 등이 혼재하는 데다가 통역의 현장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통역사의 두 번째 윤리는 의뢰인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과 통하는 일이 된다.

6. 나진-하산을 넘어 통하는 세계

2013년 한국정부는 TKR(Trans Korea Railway)를 구상했다. 부산을 출발해 북한의 청진을 거쳐 나진, 그리고 러시아의 하산을 통하는 철도 프로젝트이다. 이 철도는 러시아의 움스크와 모

스크바를 지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이어진다. 한국 북방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통일을 염두에 두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에 적극 찬성을 했고 내친김에 베링 해협을 지나 미국 알래스카를 잇는 베링 해저터널의 구상도 같이 내놓았다. 미국으로 러시아의 가스를 실어 나르고, 알래스카의 목재와 캘리포니아의 물품을 러시아로 보내는 구상이다. 미국은 이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지만, 경제 살리기에 이만한 계획이 없다.

현재 1조 8천억 달러를 들여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중국-유라시아-유럽-중동 유통 철도 및 기간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추가적으로 미국이 이에 적극적인 사인을 보내는 때, 비로소 TKR과 베링 해저터널 계획도 구체화 될 것임이 확실하다. 미국으로서는 일대일로 사업의 물주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친선국인 영국,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용인해 주었다. IMF와 세계은행도 자금을 대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미 100개국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협정을 체결했다. 한반도 통일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들어간 자금이 이미 거액일 뿐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협정을 체결한 경제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금융 세계화가 아니라 유통의 세계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 참여국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급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지만

결코 실패할 수도 없는 윈-윈 프로젝트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물론 중앙아시아를 지나 모스크바로 통하는 중국의 TCR(Trans China Railway)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러시아 및 옛 소련 지역과 만나게 된다. 아무래도 이것이 러시아와의 네 번째 만남일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경제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러-중 금융과 석유 및 가스 무역뿐만 아니라, 유럽-중국-러시아-한국-미국을 연결하는 유통망을 개발하고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브라질과 인도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화되어 가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현실을 볼 때, 우리 통역사의 역할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국내 러시아어 통역사들은 러시아와의 네 번째 만남을 기대하면서 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력을 키우며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통역은 시간 예술이다.' 또한 통역사는 문화 간 소통의 중재자이다. 섬광과 같은 짧은 순간에 원문을 문화와 맥락에 맞추어 이해하고, 또 다른 언어문화와 그 맥락에 맞는 최적 최상의 표현을 찾아 전달하여 듣는 이를 이해시켜야 한다. 짧은 순간 통역사의 머리는 온갖 생각으로 반짝인다. 이 복잡한 머리와 현장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이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통하게 하는 '통하는 통역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주임 교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전망

올레그 다비도프

최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또다시 국제옵서버들의 관심을 끄는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그 뒤를 이어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대규모 인적 개편이 단행됐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및 최측근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북 대화 지속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북한에서는 실패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2월 27~28일)을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규합하는 것이 당-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됐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최고 통치기관인 국무위원회 의장으로 위풍당당하게 재선출됐다. 명목상 국가수반 역할을 맡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20년 이상 이 직책을 맡았던 김영남을 대신해 최룡해가 맡게 됐다. 신임 내각 총리로는 김재룡이 선임됐다. 당 지도부의 최고 수뇌부와

국무위원회의 구성원이 쇄신됐는데, 김정은이 잘 아는 사람들로,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보여준 인물들로 교체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전략’이 정해졌다. 이 전략은 국가 경제발전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을 지향하던 이전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대신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 구조적인 농업 위기와 심각한 식량 부족, 광범위한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플루토늄 생산시설인 영변 핵 원자로를 폐쇄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의 노선으로 채

택된 최고 수준의 특정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의 해제를 얻어내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할 경우에만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포괄적 거래를 고수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중요한, 그리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일한 원인은 미국 측이 '북한의 기본적인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며,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선을 고수할 생각이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작정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현 단계에서는 국가를 위해 관망하는 노선이 더 좋다고 밝히고, 사실상 미국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 최후통첩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 측의 새로운 타협안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미국 측의 건설적인 제안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이 펴고 있는 것과 같은 '적대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모종의 강경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긴 연설을 하는 동안 비핵화 과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으로 피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가 지도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외적으로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비핵화 대신에 북한의 주요 현안인 북·미관계 정상화와 개선이라는 완전히 다른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 최소

한의 대가로, 즉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포기, 그리고 대량과괴무기 생산시설의 일부를 내주는 대가로 핵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사건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국가수반이 한·미 양국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대북관계의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 만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문은 이례적이었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먼저 의견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과 그의 대외정책 핵심 보좌관들과의 별도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먼저 북한에 양보하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 대규모 식량 지원 등과 같은 굵직한 남북 협력사업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를 오래 끌지 말고 해제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북미관계를 조율하고 북미대화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대부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히 거부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으며, 상황이 '시간 부족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북제재는 공정하게 정해졌으며,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그 어떤 다

른 보상도 북한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에 대해 워싱턴의 반응은 이것은 반가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북한의 지도자와 더 일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바로 그 시기에 일본은 대북제재 문제에 관해 완전히 다른 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유력 정치가들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한적인 핵 잠재력이라도 보유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태지역의 정세 불안에 초래하는 길이며, 미국이 ‘북한을 저지할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대북압박을 유지하거나 압박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서 분명히 감지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 행정부의 입장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지도자가 자신의 국제적 역할을 심하게 과

대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은 제3자 없이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중재 브로커도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 아닌 일에 끼어들지 말고 동족과의 관계에서 좀 더 독자적인 노선을 펼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과 결별’하고 2018년 4월과 9월에 채택된 남북선언문에 규정된 남북 공동 경제협력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작년에 이루어진 긍정적인 진전 이후 다시 매우 복잡한 대립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도 조속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모든 것으로 보아 현재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대결 방향으로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역내 정세에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мирного диалог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에 앞서 한국과 각 방문국 간 정치, 경제적 협력 수준을 현저히 끌어올리기 위한 광범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외교부 차관급) 이후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대화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중앙아 포럼이 다자간 기구나 상호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견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정상 간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양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중국, 러시아, 몽골과의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특히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현 한국 정부는 그 동안 한국이 이 지역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것을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장은 (중앙아시아에 소홀했던) 지난 6년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심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으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먼저, 이 지역과 한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2018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각각 약 22억 달러 수준이었다(반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카자흐스탄 교역액은 40억 달러, 한-우즈베키스탄은 30억 달러였다). 그 외 다른 국가들과는 교역액이 연간 2

천만 달러에서 1억3천만 달러 사이 수준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자본이 참여한 400~500여개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수치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 자본이 참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일부는 중국을 비롯해 제 3국으로 수출되며, 중앙아시아에서 수출되는 품목들은 대개 희토류 금속, 원유(카자흐스탄), 면화 및 직물(우즈베키스탄)에 한정돼 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경제 운영의 후진성, 개발 우선순위 선정의 불확실성도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8년 12월 '2019-2021 우즈베키스탄 주요 구조 개혁 방향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 제 2항에서는 '경쟁 시장 경제로 전환의 가속화'를 명시한 반면, 제4항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2018년 9월 '국제무역 지대로서의 중앙아시아'(Central Asia)라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볼 때 그 구상의 실현을 위한 우선과제와 메커니즘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토카예프 당시 카자흐스탄 임시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순방은 각국의 우선 발전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인 아시가바트에서 약 500km 떨어진 투르크멘바시에 한국 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대규모

가스화학단지인 키안리 플랜트를 방문했으며, 양국은 향후 기존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의료 산업 현대화를 위해 원격 진료 시스템과 같은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등 교통 물류, 헬스케어, ICT,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논의된 협력 분야는 과학기술, 물류, 농업, 산업, 인프라 건설 등이었고,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예전과 다름없이 우라늄, 석유, 가스 채굴 분야이다. 이 외에 중앙아시아에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국은 총 130억달러 규모의 24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한국은 또한 새로 출범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이 기업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는 시장개혁과 외국기업의 활동 지원 정책은 한국 측의 환영을 받았다.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양국간에 협력 프로그램이 채택됐고, 이에 따라 현재 두 나라 사이에 비자 발급이 간소화됐으며, 노동이주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 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양국간 교역 및 투자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 일행에 따르면,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효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로 유망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또한 정치적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는 한국 정부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UN 등 여러 국제 기구에서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익하다고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밝혀준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때 일부 전문가들이 리비아 사태와 그 지도자였던 카다피 대통령의 몰락이 리비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결과라고 주장할 때에도 카자흐스탄은 흔들림 없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과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정과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정부가 북한에 제시하는 비전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은 또한 호주, 멕시코, 터키 등의 국가들

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최근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야심찬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중견국 협의체(MIKTA: 믹타)를 결성하여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새로운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도 이러한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번에 논의된 경협 프로젝트들이 실현된다면 정치-경제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 자국의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번역 : 서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

youkyseo@naver.com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 N. Fedorovskij) 경제학 박사, IMEMO 아태지역 책임연구원
- 원제 : К итогам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в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출처 : IMEMO 시시논평(2019년 4월 24일)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 전략

바실리 미헤예프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전략 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은 가치 기반 및 목표와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달성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과 상황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최고 전략 계획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샤오캉 사회'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21세기 중반까지 세계적인 혁신 선도국으로의 변모를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 실현, 21세기 중반까지 '군사, 특히 군사-우주 분야의 최첨단 능력' 창조이다.

경제 다변화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의 전략 계획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상호균형은 점차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경제전략 계획은 주로 대기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장기 목표 수립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분야 전략 계획은 미국과의 정치·군사동맹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세계적 및 지역적 영향력을 저지하고, 러시아, 중국,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전략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통일 문제이다.

중국의 전략 계획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기본 구성요소는 5개년 계획이다. 현재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수행되고 있다.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은 약 3년 정도 소요된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작업을 책임진다. 위원회는 당국 및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용역을 발주하고 총괄 서류의 예비안들을 작성해

심의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시진핑 주석 집권 하에 권력의 재집중화 과정에서 경제정책 수립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18년에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와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지도부에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결의가 채택됐다. 중국 국무원 고유의 결정을 위한 공간은 축소되고 리커창 총리는 기계적 인물이 됐다.

중국에서는 개혁 초기와는 달리 공식적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전진(‘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다’)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가정책 분야에서 ‘위로부터의 계획’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 시행착오의 값은 매우 비싸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 계획의 질을 높이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는 ‘중국 특색의 신형 두뇌집단 건설을 촉진하고, 결정 채택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당국은 ‘싱크탱크’를 외국에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기구로도, 또한 국가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정보원으로도 이용함으로써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가용 가능한 재원이 확대되고 이념적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와 정부의 주문을 활동 목적으로 삼는다. 그들은 국가정책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서방에서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중국제조 2025’ 전략은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선포한 10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은 로봇기술, 신세대 정보기술, 우주·항공, 조선, 궤도 교통, 고효

율·신에너지 차량, 전력 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 및 고성능 의료장비의 10개 부문을 포괄한다.

‘중국제조 2025’ 사업은 3단계로 구성된다. 선포된 2025년 목표를 달성한 다음 더 나아가 2035년에는 중국이 세계적 제조국의 반열에 오르고, 205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 군사 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의 장기 계획도 이런 도식에 따른다. 2020년까지 중국 군사력의 기반을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전체적인 현대화를 달성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2050년까지는 세계적인 군사·기술 주도국 수준에 오른다. 전략 목표의 시야가 30년 이상을 내다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의 경제 및 군사 목표 설정에 나타난 심각한 대미(對美)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수입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실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것은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논의에 어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부품, 항공 엔진 등의 기술력이 뒤쳐져있음을 인정하고 국가적 과학기술 기반을 발판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일본의 관점

일본의 전략 계획은 기업과 정부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됐다. 정부와 민간기업 간 목표 설정과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 부문은 1950년대부터 5~7개년 발전 프로그램(계획) 형태로 발전했다. 국가 발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은 예산을 사용하고, 전후 수십 년 동안 우선순위의 분야와 목표들을 위해 재정과 물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수많은 행정적 수단을 사용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본 내의 관계망이 복잡해짐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 이러한 발전 계획들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들에 대해 비공식적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가시적 미래의 발전을 예측하려는 시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향들을 분석적으로 개괄하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에 대한 경제 당국의 소위 '행정 지도'는 1990년대 경에 이미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다. 전통적인 선별적 경제정책 수단들(개발 연구소들의 대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은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상실했다.

현재 일본 전략 계획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국가 발전의 주요 도전과 그것의 극복 방안을 공식화하는 압축적인 문서들(전략들)을 채택하고 그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런 문서의 주 용도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수립, 관측되고 있는 메가 프로세스 및 경향들과 결부된 과제 제시, 정부의 의견과 목표를 수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양적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경향과 비율 그리고 예산 지출 증가 방향을 예측하는 것에 그친다. 수많은 부서 간 협의와 공적 자문도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까다로운 관료적 절차와 무

관한 압축된 전문가 집단의 일이다.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은 정부의 전략 서류의 복잡성(complexity)과 압축성(compactness)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현대 '전략'의 압축성은 경제, 사회·정치, 안보, 자연환경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 정해진 과제와 목표들의 상호의존성을 예상하고, 영향력이 교차하는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도록 해준다.

일본에서 기업 차원의 장기 계획은 많은 기업들의 성장과 활동 영역 다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다. 현재 일본의 모든 대기업은 자체적인 예측·분석 부서가 있으며, 장기 사업 계획의 우선순위와 주안점을 보여주는 전략적 성격의 문서자료를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생산활동과 유통을 위한 기술적 기반의 역동적인 변화와 최근 글로벌 경제와 각 국가 경제에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함으로 인해 계획의 시야가 축소되고 있으며, 과정 자체도 더 유연하고 역동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화를 고려한 장기 비전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전략 계획 수립은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1) 정부 및 당국, 지방정부, 학술 및 전문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실무 그룹 조직, 2) 제안서 마련, 3) 공론화, 4)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무회의(대통령 산하 국가통치기구) 대표들의 분석, 5) 대통령의 재가, 6) 국회 비준 상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

내 문제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업 계획, 지방 계획이 종합된다. 이러한 구상들의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최근 그것들을 통합하는 핵심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국가적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지도층은 국가가 '성장과 불황의' 기로에 있음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 낮은 출산율, 청년 실업, 지역 불균형, 그리고 환경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문제들의 해법은 남북분단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극복하고 국가의 대외 정치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종류가 서로 다른 이런 행동들에 개념적 성격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조정하고 공동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드러나 있다. 이것은 북한과의 장기적인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지대로 변모시키는 지역 전략의 일부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전략 속에는 창조경제와 현실정치 그리고 '한반도 신질서' 구축이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반도 신질서'는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동북아 신질서' 확립을 가져오고, 그 결과 아태지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 협력의 경제적 기반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 다음 남북한, 중국, 러시아, 그 밖의 역내 국가들이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 벨트' 조성이다.

동북아의 새로운 경향

최근 동북아 국가들에서 국가의 자본과 상

품 및 서비스의 대외적 확장과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지역적 정치 입지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경향의 지경학적(geoeconomic) 전략 계획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경제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기 목표를 갖고 있는 중국이 일종의 선도자가 됐다. 2013년에 나온 중국의 글로벌 전략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이 현재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향하는 '신북방정책'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하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들고 나왔다.

지경학적 전략 구상은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새로운 활동 무대를 차지하려는 국가들 간 경쟁과 불신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기도 한다.

경쟁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미국, 호주, 인도의 시장경제 자본을 끌어들이는 일본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과 인도양, 아프리카, 태평양 아시아 경제권에서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다.

상호협력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교차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려는 한국의 최근 구상이 있다.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지경학적 목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이 자국의 자본을 받아들인 국가들에게 이른바 '부채의 덫'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2019년에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연계성(커넥티비티)'

구상을 들고 나왔다. EU의 구상은 세계 경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덜 '진척된' 부문들의 발전에 유럽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유연하고 의무는 덜한' 옵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러시아에 있어서 지경학적 계획들과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아이디어는 일종의 새로운 가능성의 '덧문'을 열어준다. 이 경우 중국의 전략 사업이 가장 전망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는 전략적 경제 계획의 현대적 경향이 역내의 다른 국가들(일본, 한국)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드러낼 뿐 아니

라, 전략적 정치적 결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단순히 일대일로 전략에 새로운 장기적 지경학적 목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경제전략과 대외 정치전략을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목표가 중국 자체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의미와 내용을 획득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의 경쟁국들과 협력국들, 분석가들과 정치가들에게는 이미 '지혜의 양식' 또는 도전이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알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원제 :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ПРАКТИ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5월 12일)

러·중 관계 : 실제와 전망

바실리 미헤예프

오늘날 러·중 관계는 '2차원적 성격'을 띤다. 하나는 소위 '전대미문의 높은' 차원, 즉 '전면적이고 전략적 동반자관계'이다. 그 관계는 양국 지도자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회담, 적극적 군사 협력, 합동 군사훈련, 여러 국제 문제들(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의 상황 등)에 대한 유사한 입장, 유엔 안보리 투표 시에 중국의 러시아 지지 등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동맹을 구축하려는 생각에서 보듯이 깊이 있는 경제 통합으로의 방향성 공유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본주의적 협력 등으로 표출된다.

다른 하나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수면 아래 감추어진 서로간의 의구심이다. 그것은 먼저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G2로 성장한 중국이 글로벌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비록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취하는 행동을 중국이 비난하

지도 않았고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동유럽으로 가는 '일대일로' 출구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정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좀 더 복잡하고 값비싼 '남쪽' 대안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적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통적으로 중국 '포비아'를 갖고 있는 데다가 현재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러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대(對)러시아 정책은, 중국이 '무역 마찰'이라고 에둘러 말하는, '미·중 무역관계의 악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로운 상황을 맞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군사-정치적, 경제적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용도로 '러시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대(對)미 정책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러시아를 활용하면서도 중국은 이와 동시에 러시아 때문에 대미관계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염려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기업은 자칫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거나 않을까 걱정하여 러시아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과도하게 머뭇거리고 있다. 2018년 말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이 러시아 은행가에 대한 개인적 제재를 중국 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중국의 파트너들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해야만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제재’ 하에 놓여 있으며 이는 러중 반미동맹의 근거가 된다(비록 완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 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정치적 이유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와 미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다면 제재는 풀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경제 분야에서의 해결만 있으면 되는 관세 ‘제재 조치’의 대상이다.

대외정책 분야에서 중국은 자국의 국제 행동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새로운 조건’ 하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기를 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자국의 중요한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내려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말하는 ‘동방으로의 방

향 전환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정책의 목적은 무엇이고, 구체적 조치들은 무엇이며,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그 정책에서 중국, 일본, 남한, 아세안, 미국 등에 어떤 위상이 할당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를 원하지 않는가? 이때 러시아가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은 트럼프의 손안에 있으며, 현재 중국은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중국에서는, 러시아가 아태지역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는 현재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얼마만큼 기대를 가져도 좋을지 그 기대치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양국 사이에 있던 기존의 부정적 요인들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18년 러·중 무역량은 1천 8십만 달러를 상회했다. 2018년 현재 러시아의 대(對)중국 수출량은 2017년 대비 44%나 증가하여 561억 달러였으며, 중국으로부터 러시아의 수입량은 8.7% 증가하여 523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위상을 굳혔다. 러시아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넘는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8년 5월 17일 <유라시아경제연합-중국 무역·경제협력합의서>를 통해 러·중 상호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

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연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보란 듯이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워싱턴 경제포럼에서 중국은 자국 글로벌 인프라 전략에 러시아의 북극 해양로를 포함시켜 ‘아이스 실크로드’라는 이념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기분을 맞추려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중 무역의 ‘질’에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2018년 러시아의 대(對)중국 수출량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몫이 76%까지 치솟았다. 자동차, 설비, 운송수단의 비율은 3.2%까지 감소했다.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러시아의 식료품과 농산품의 ‘증가’는 통계수치조차 조사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수출량에서 농산품의 비율은 최소한 0.06% 포인트 감소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4.5% 정도에 그쳤다.

반대로 러시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요 상품은 자동차설비, 운송수단이 57%, 직물과 신발이 11%, 화학공업 생산품이 대략 10%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 무역파트너가 아니며 양국 무역량은 보통 9~10위 정도이다. 2018년 중국의 수출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였고, 중국 수입량에서는 2.8%였다. 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지표는 각각 19.2%와 7.2%, 유럽연합은 16.4%와 12.8%, 아세안 국가들은 12.8%와 12.6%, 일본은 5.9%와 8.5%, 남한은 4.4%와 9.6%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1% 미만이 러시아에 직접 투자되고 있으며 그나마 감소하는 경

향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평가에 따르면, 2018년 1~6월 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 총량은 24% 포인트 감소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러·중 무역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요인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이다. 중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제재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법인과 자연인들과의 협력을 심각한 비즈니스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은 유럽 지역의 회사들에 비해 이 같은 비즈니스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월가를 포함하여 여러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대중매체에서 언급되는 어떤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자사의 유가증권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 파트너를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와 동시에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중소(中小) 기업들에게는 해당 리스크가, 중국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더 낮다. 통상 그런 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지역 내 주식거래소에는 리스팅이 없으며, 무역-수출계획을 제3국, 다시 말해서 서비스 및 상품의 최종구매자를 숨길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재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 회사들과 자연인들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에 대해 중국 대부분 회사들은 ‘아직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서 벌이는 중국의 사업은 정치적 위협에 더욱 노출될 것이다.

첫 번째로, 중국은 자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세계시장으로 더 깊숙이 통합될 것이고,

미국, 유럽과 형성된 중국의 정치-경제 관계는 점점 발전할 것이며, 경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통합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금융 분야의 자유화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세계금융체계의 상호관계는 더 공고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점점 더 많은 중국 회사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회사들과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대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제재의 울가미'에 빠져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부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회사 신용대출을 감소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시장과 새로운 재정지원을 찾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것 역시 중국 회사의 '승인된 약점'이 객관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은 제재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이나 자연인들과 협력할 시 비즈니스 리스크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중국의 판단은 향후 3~5년은 계속 될 것이라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회사들이 러시아 시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를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상황의 발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 맞게 자국의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국의 사정기관들이 구체적인 투자를 하나하나 매우 자세하게 검열하기 시작했다(중국의 반(反)부패 투쟁은 까다로운 규제로 한몫했다). 일례로 2017년 6월 중국 부동산업체 달리안 완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은행들에는 달리안 완다가 수행한 해

외거래 신용지원의 양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2016년 해외거래 관련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8월에는 중국 국영회사를 감독하는 기관들이 새로운 요구를 발표했다. 중국 측 기업가들에 따르면 그 요구들은 '국가 해외투자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예는, 미국과의 '마찰' 상황에서 알래스카산(產) 가스를 수입하여 가스 수급을 다양화하겠다는 중국 정책이다(2017년 11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체결된, 미·중 '무역마찰'이 끝날 때까지 동결된 합의서).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수출에 구체적인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비록 미국산 액화천연가스가, 러시아와 연결된 중국의 북동산업지역은 그대로 두고, 사용 인프라가 구축된 중국의 동쪽, 중앙, 남동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중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러시아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중국 내 새로운 시장개척도 복잡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전략적 위험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제재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미치는 러·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간접적이지만 뚜렷이 감지되는)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역할과 비교해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을 낮게 잡도록 만드는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여러 정치적, 경제적 세계 및 지역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현실화하려는, 러시아의 행보와 보조를 맞추지 않은 중국의 조치들은 러시아 대외정책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단기적 전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새롭게 접근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양국 관계와 세계 발전이라는 전략적 문제들을 논의할 때 중국의 핵심정책과 러시아의 이해를 좀 더 밀도 있게 결합해 가야 한다. 둘째, 러시아가 일본, 남한, 인도, 베트남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조절할 수 있는 소위 '주변' 외교를 보완해 가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를 이용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조절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대등하게 보려는 정책 노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러·미 관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나 중·미 안보논의와 러·중 안보논의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새로운 중단거리 미사일 제한협정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구상은 이 문제를 다루는 중국과 회담에서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엄존하는 불확정성(인도-파키스탄 관계, 또다시 막다른 길로 들어선 북한 상황, 미국과의 관계, 유럽연합과의 관계, 인도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은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에서 4월(일대일로 회의)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6월(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 계획된 러·중 정상 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진핑의 말에 따르면, 대외정책에서 중국이 달성한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 가운데 하나로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중·러 관계’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중·러 외교관계 수립 70주년 기념행사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중국은 2019년에 첨예화된 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의 위기도 잘 막아내고 있다. 많은 중국 측 연구자들은 정치적으로 BRICs는 소속 국가들의 행동 통일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진단한다.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에 관련해서는 러시아 및 중국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과 나토 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 대화)에 점점 더 끌리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인도 갈등이 발생했던 2018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다른 회원국들인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정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경우들을 고려할 때,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중국 측 입장에서는 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를 보다 공고하게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현재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고 중·미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미 사이에 악화되고 있는 관계를 자국에 이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신(新)실크로드 전략을 현실화하려는 중국에게는 러시아와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중국 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인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의 대외정책 상 부

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피뢰침’의 역할을
한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원제 :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 출처 : IMEMO 시사논평(2019년 4월 1일)

화폐시스템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세르게이 발렌테이

1. '리스크 장사꾼'들은 계속 돈을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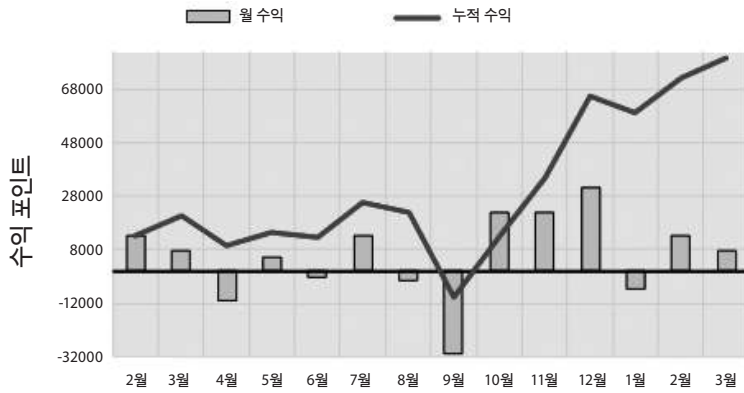
불안정한 대외정치 상황과 서방의 제재 등 여러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 속에도 러시아 증권시장의 주요 지표는(러시아 RTS 지수, Russia Trading System) 2016년 이후 변동성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증시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RTS의 파생상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옵션 상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온 모스크바 거래소의 노력도 있다. 일례로, 모스크바 거래소에서는 2017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1주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 옵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만기가 짧은 상품은 없었다. 그 결과 옵션의 시간 가치가 급락할 때 수익을 보려는 소위 '리스크 매도꾼'들이 거래소로 몰려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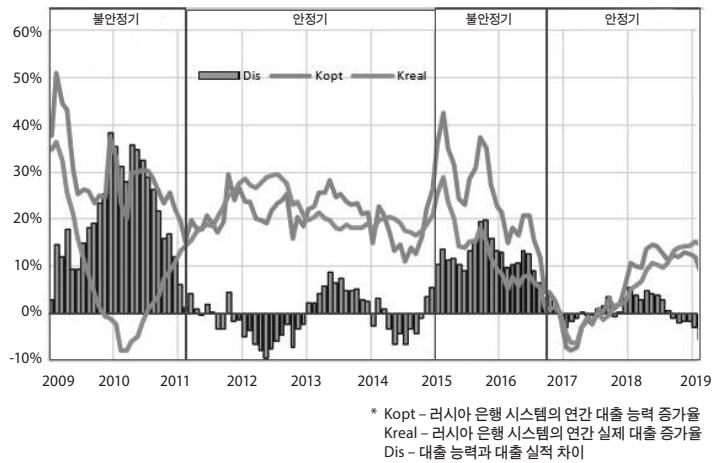
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곧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옵션 거래 만기일까지 기초자산 가치가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길 바라는 대형 투자자들이 이러한 니치(niche) 상품에 몰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RTS 지수 변동성이 몇 배나 낮아졌다.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Росс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мени Г.В. Плеханова) '금융통화시스템 연구 및 금융시장 분석' 연구소가 개발한 옵션 전략 최적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8년과 2019년 거래된 RTS 지수의 월 단위 옵션 거래 실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옵션 매도 백 테스트(back-test)를 실시해 보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4월과 9월 두 달을 제외하고 옵션 거래에서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나타났다. 제외된 경우는 2018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졌던 시기와 2018년 9월 미국이 러시아에 소위 '지옥과 같은' 제재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나돌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때이다. '리스크 매도꾼'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35%를 넘는다. 외국 정치가들이



[그림 1] 2018년, 2019년 모스크바거래소에서 계속적인 '리스크 매도' 전략 자동화 결과



[그림 2] 대출 능력과 실제 대출의 증가율 격차를 기준으로 본 러시아 은행의 금융 안정기/불안정기

러시아에 대해 예상치 못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옵션 매도 전략은 시장의 전문 투기꾼들에게 끊임없이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2. 금융 시장은 안정적인데 대출시장 호황은 언제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금융 시스템은 두 번의 불안정기를 경험했다. 불안정기는 2009년~2010년, 2015년~2016년간 두 번에 걸쳐 각 2년

간 지속됐다. 이 두 불안정기 사이에는 약 4년 동안 지속된 금융 안정기가 있었다(그림 2 참조). 금융 안정 상황이란 은행이 보유 자산을 대출 영업에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시스템이 금융 안정기와 불안정기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은행의 대출 능력과 실제 대출 지표 간의 차이를 보면 된다. 대출 능력과 실제 대출의 증가율 간 격차가 커지면 금융은 불안정기에 돌입한다. 반대로 대출 능력이 실제 대출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면 금융 안정기이다.

최근 러시아 부실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면허 박탈 및 취소, 은행간 경쟁 심화, 새로운 감독 및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상당한 구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은행 시스템은 절대적 지표와 대부분의 상대적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 년 전 불안정기에 보였던 대출 능력과 실제 대출간 큰 격차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많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물경제 부문에서 부채를 줄이려는 디레버리징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2014년 말 외환쇼크 당시 은행 시스템의 대출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까닭은 당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은행의 대출 증가세는 대출 능력 지수 사이클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2011~14년의 금융 안정기와 비교했을 때 대출 증가율이 다소 낮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30%에 육박했던 대출 증가율이 현재는 허용 범위인 연 10~16%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활동과 자산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은행 시스템이 좀 더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엄격한 규제를 바탕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추진하여 신용 거품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금융 안정성이 달성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에 대출 붐이 일어나기 위한 여건은 아직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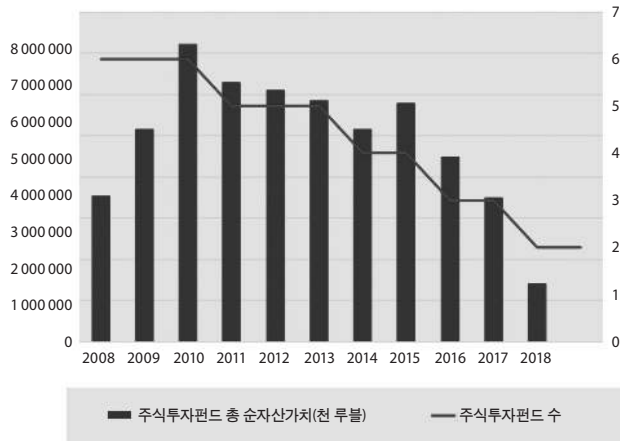
3. 러시아 주식투자펀드, 2개 밖에 안 남았다

러시아 증시에서 주식투자펀드는 이제 거의 남지 않게 됐다. 2008년부터 2010년에 주식투자펀드의 순자산총액은 35억 루블에서 72억 루블로 증가했고, 이 당시 펀드의 숫자도 6개로 유지됐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점차 펀드의 수와 총 순자산가치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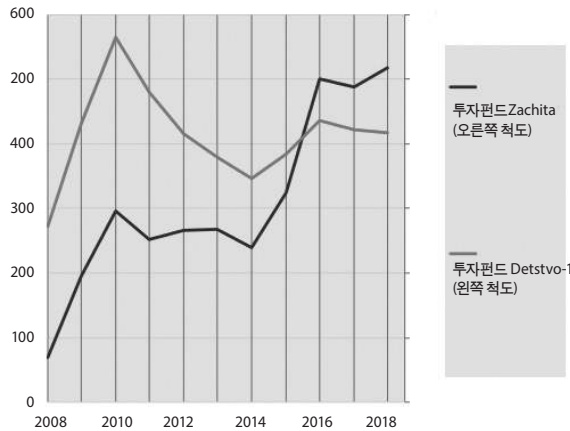
이후 운영되는 펀드의 총 순자산 가치는 계속 줄어 2018년 무렵에는 14억 루블까지 떨어졌다.

현재 러시아 중앙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투자펀드는 2개뿐이다. 'Detstvo-1'(Детство-1)과 'Zachita'(Защита) 투자펀드이다. 2008년 이후 이들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각각 1.5배 및 7.5배 증가했다. 두 펀드 모두 페름 지방에서 등록된 펀드로, 자산운용사는 '아기텔'(Agidel)이다.

이 두 펀드는 1990년대 초반 소련 해체 이후 진행된 민영화 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의 바우처를 전표투자펀드에 맡겼었다. 이후 대부분의 전표투자펀드는 파산하거나 각종 기금으로 그 형태가 전환됐다. 주식투자펀드의 특징은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Detstvo-1'(Детство-1)과 'Zachita'(Защита) 두 펀드의 주당 순자산 배당수익률은 연 5%대였다. 총 순자산가치 증가와 정기적인 배당수익을 고려한다면, 이 두 펀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설립된 전표투자펀드를 전신으로 하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국민들이 맡긴 바우처



[그림 3] 러시아 주식투자펀드의 주요 지표



[그림 4] 주당 총 순자산가치

를 휴지조각으로 다 날려버린 것과 비교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3월 한 달간 3개 은행 면허 박탈, 1곳은 면허 취소

올해 2월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고강도 구조조정 없이 조용히 지나간 반면, 3월이 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세 개 은행의 면허를 박탈하고 한 곳은 면허를 취소시켰다. 이렇게 모스크바 2곳, 바슈코르스탄 자치공화국 1곳, 사마라 주 1곳의 은행이 업무를 종료하게 됐

다. 이들 은행은 러시아에서 자산규모 순위 100~500위에 속하며,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은 자산 규모 132위이다(표 1 참조).

지난 3월 면허를 상실한 은행 4곳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은행은 ‘Roskomsnab bank’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메가 레귤레이터인(mega regulator)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은행이 돈을 상환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이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들과 거래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사업방식은 ‘금융 피라미드’와 유사했다. Roskomsnabbank

[표 1] 2019년 3월 면허를 상실한 은행

No	면허 박탈 및 취소된 금융기관 (러시아 중앙은행 명령 일자순)	면허 등록 장소 (면허기간)	2019년 3월 1일 기준	
			자산규모 (십억 루블)	자산규모 순위
1	Zhilstroybank(Жилстройбанк)	모스크바 (31.03.1994-01.03.2019)	0,56	456*
2	Roskomsnabbank(РОСКОМСНАББАНК)	바슈코르스탄 (01.03.1991.07.03.2019)	40.6	132
3	RTS 은행	사마라 주 (11.04.2002-14.03.2019)	3,58	332
4	International Settlement Bank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асчетный банк)	모스크바 (04.08.1994-20.03.2019)	2,43	389

* на 01.02.2018

은행은 법인 고객(소위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이라고 하는)들을 위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개인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여러 회사들에 대출됐다. 그리고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투자 수익금은 사실상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면허가 취소된 RTS 은행의 경우 여신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이 건전성이 낮고 부실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업손실 가능성을 대비해 준비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RTS 은행은 지속적으로 신용 리스크를 낮춰 왔다.

국제결제은행(International Settlement Bank)은 환전 및 개인고객의 송금 업무를 주로 했다. 이 은행은 의심스러운 외화 현찰 거래와 불법자금이체 활동인 소위 '트랜짓' 거래에 연루돼 러시아 중앙은행의 불법자금세탁 및 테러 지원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한편, 모스크바 'Zhilstroy bank'는 자발적 청산 기간 중에 해당 결정을 내렸다.

5. 러시아 신용평가기관들, 점점 더 인기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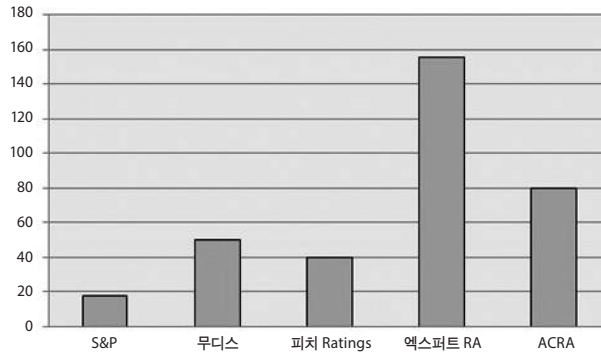
신용평가기관이 은행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신용등급을 통해 은행의 지불 능력, 금융 건전성, 신뢰성, 시장의 평판을 판단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지표이며, 이에 따라 대출거래 유치와 신용거래 조건이 결정된다. 고객들은 이 등급을 바탕으로 특정 은행과 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는 다음의 3대 기관(빅3)을 꼽을 수 있다.

- 무디스 (Moody's Investors Service),
- 피치 Ratings(Fitch Ratings),
-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 S&P)

신용평가기관들은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자체 기관의 등급을 부여한다.

러시아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가 큰 곳으로는 ACRA(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엑스퍼트 RA, 루스레이팅(RusRating), NRA(National



[그림 5] 신용평가기관별 평가업체 수

Rating Agency), AK&M 등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기 전까지 러시아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 않았다. 당시에는 ‘빅3’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시장의 최대 업체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고, 러시아 신용평가사들의 고객은 주로 영세한 업체들이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은행들은 ‘빅3’에게서 신용평가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소규모 은행들은 NRA나 AK&M과 같은 러시아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2014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러시아 금융권의 신용등급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무디스(Moody's)는 소빈뱅크와 SMP 은행의 신용등급을 철회해 버렸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2015년 ‘러시아 연방 신용평가기관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제222호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은 그 어떤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보장받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거나 표명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자국 내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된 신용등급을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결정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신용평가기관 중 엑스퍼트 RA와 ACRA,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에는 무디스(Moody's), 피치 Ratings, 그리고 S&P 세 곳만 신용평가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전문 투자자들이 검토할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기관들이 발표하는 신용평가이다.

[그림 5]를 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권한을 인정한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한 러시아 은행들 수가 제시돼 있다.

가장 많은 업체를 평가한 기관은 러시아의 엑스퍼트 RA이다. 엑스퍼트 RA는 156개 은행을 평가했다. ACRA는 80개 러시아 은행을 평가했다. 러시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러시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러시아 금융기관은 총 108곳이었다.

6. 몇 초 만에 송금, 간편 결제시스템 도입

러시아 중앙은행이 간편 결제시스템을 런칭했다. 이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한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은행의 고객이 핸드폰 번호나 다른 개인인증 방법(이메일 주소, QR 코드, SNS 계정 등)을 통해 어느 은행의 계좌로든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한 번 송금할 때 걸리는 시간은 15초를 넘어선 안되며, 결제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가능해야 한다. 해당 결제시스템의 유일한 단점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회당 거래 최대액수를 60만 루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프롬스비야즈뱅크(Промсвязьбанк), SKB뱅크(СКБ банк), 틴코프뱅크(Тинькофф Банк), 'Ак Барс' Holding('Ак Барс' банк), 로스뱅크(Росбанк), VTB뱅크(ВТБ), 가스프롬뱅크(Газпромбанк), 알파뱅크(Альфа-Банк), 라이파이젠뱅크(Райффайзенбанк), 키비뱅크(Киви Банк), 소브콤뱅크(Совкомбанк), Credit Union 'Payment Center'(РНКО 'Платёжный центр') 등 12개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은행 모두가 송금 및 입금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소한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은행들은 모두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자체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 목록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P2P, 즉 개인간 자금이체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러시아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러시아 스페르뱅크는 이미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 고객들은 계좌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스페르뱅크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 수는 2018년 4월 천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평

균 거래량은 1,530만 회를 기록했다.

게르만 그레프 스페르뱅크 CEO는 모든 은행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도입하는 데에 반대하고 있다. 많은 은행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스페르뱅크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여러 특권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스페르뱅크 온라인' 어플을 통해 이체되는 돈은 은행에서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다.
- 스페르뱅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적지 않은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다(같은 지역 내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타 지역이나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송금액의 1%, 최대 1천 루블이다.)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자금 이체는 '스페르뱅크 온라인' 어플을 이용할 때보다 송금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9년에는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지만, 2020년부터는 수수료가 거래 액수에 따라 최대 6 루블까지 될 것이다. 이 경우 간편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다수의 은행들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간편결제 접근성이 높아져 캐시리스(Cashless·무현금) 결제 비중이 커질 것이다. 2018년에는 무현금 결제 비중은 55%였으나, 2019년 말(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경엔 이를 6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들이 다 그렇듯, 이 시

스텝도 단점이 없지 않다.

1.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카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 사기꾼들이 카드 소유자의 휴대폰 번호와 일부 개인 정보를 알아낼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2. 수취인이 볼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자금 수취를 거부하기가 불가능하다.
 3. 고객들이 정확하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등록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계좌에 예전 소유자 핸드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시스템 접속 오류로 간편결제에 기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의 잘못으로 시스템이 다운된 경우는 이미 여러 건 알려진 바 있다.
- 간편 결제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면 C

2B(Consumer to business), C2G(Consumer to government)(세금, 벌금, 납부금, 공과금 납부 등), B2C(Business to consumer), 그리고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의 자금 이체도 간편 결제로 가능해질 것이다.

7. 불가연방관구 지역은행의 부실

불가연방관구의 은행 산업은 지역별로 개별 은행들의 영업 활동과 성장 전략 면에서 비정상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불가연방관구 지역 은행들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은행과 다른 지역 금융기관과 경쟁이 미미하다.

[표 2] 2019년 초 기준 불가연방관구 내 지역은행 영업활동 지표

지역	전체 예수금 (백만 루블)	가계예금 (백만 루블)	가계예금/ 전체 예수금 (백만 루블)	대출금 (백만 루블)	대출금/예수금			지역주민 1명당 예금(루블)		
					전체	지역은행	외부은행	전체	지역은행	외부은행
불가연방관구	5 480 099	3 614 488	66,0%	5 230 643	95,4%	51,8%	104,2%	121 960	13 985	107 975
바슈코르스탄	588 840	367 862	62,5%	717 719	121,9%	142,2%	121,2%	90 451	2 746	87 706
마리엘 공화국	72 190	55 645	77,1%	113 076	156,6%	29,6%	159,9%	81271	2 091	79 180
모르도바 공화국	85 312	69 759	81,8%	160 823	188,5%	56,3%	227,4%	86 278	21291	64 986
타타르스탄 공화국	1 218 524	578 334	47,5%	864 334	70,9%	29,8%	110,0%	148 854	44 358	104 496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229 233	153 859	67,1%	260 868	113,8%	31,6%	126,7%	101435	18 096	83 338
추바시야 공화국	164 361	127 982	77,9%	165 575	100,7%	43,5%	103,4%	103 557	4 088	99 469
페름 지방	499 452	331 995	66,5%	536 450	107,4%	74,7%	108,8%	126 133	6 259	119 875
키로프 주	168 392	129 250	76,8%	159 573	94,8%	52,2%	104,0%	100 063	17 583	82 480
니제고로드 주	762 373	522 859	68,6%	651 884	85,5%	50,8%	88,7%	160 993	15 040	145 953
오렌부르크 주	232 283	189 799	81,7%	302 748	130,3%	68,7%	139,1%	95 396	11 559	83 837
펜자 주	183 174	134 125	73,2%	213 434	116,5%	70,8%	117,7%	99 979	2 165	97 815
사마라 주	764 050	559 945	73,3%	602 695	78,9%	86,4%	78,3%	174 782	11402	163 380
사라토프 주	340 509	264 516	77,7%	295 985	86,9%	53,2%	91,0%	106 692	10 457	96 235
울라놉스크 주	171 406	128 556	75,0%	185 480	108,2%	91,3%	108,6%	102 608	2 748	99 860

둘째, 적극적인 은행 영업을 위한 지역 보유 자본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불가연방관구의 대출 시장은 금융 불안 전망이 잠재되어 있는 과열상태라는 점이다.

지역은행과 연방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은 불가연방관구 14개 지역 중 타타르스탄 공화국(지역은행의 예수금 유치율 49%)과 모르도바 공화국(지역은행의 예수금 유치율 23%) 2곳뿐이다. 가장 경쟁이 미미한 지역은 마리엘 공화국, 펜자 주, 올라놉스크 주이다(지역은행의 예수금 유치율 3% 미만).

지역 내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수금이 부족한 현상(예대출(loan-deposit ratio) 이 110%를 넘는 경우)은 모르도바 공화국, 마리엘 공화국, 바슈코르스탄,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오렌부르크 주, 펜자 주에서 나타나

고 있다. 지역 자본만으로도 활발한 은행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타타르스탄 공화국, 니제고로드 주, 사라토프 주, 사마라 주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예수금이 대출금보다 훨씬 많다.

불가연방관구 지역은행들은 공통적으로 가계 예금과 비금융기관의 자금을 자기지역에서 조차 대출 영업에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14곳 중 13곳).

불가연방관구 중 7곳의 대출 연체율은 러시아 평균치인 6.8%를 넘는다. 그 중에 연체율이 가장 위험한 지역은 오렌부르크 주(17.6%), 사라토프 주(15.1%), 사마라 주(12.2%)이다.

번역 : 서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
youkyseo@naver.com

- 세르게이 발렌테이(S. D. Velentey): 모스크바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 원제 : Анализ трендов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системы и финансовых рынков
- 출처 : 화폐시스템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제43호 (플레하노프대, 2019년 4월)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9 3/4분기까지

세르게이 발렌테이

국내총생산 총량 지표의 변화 진단

생산물들의 최종가치로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놓고 볼 때, 러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19년 3분기 말 국내총생산 총성장률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1.39%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감소 위험 정도는

5~10% 신뢰도를 갖는다. 감소위험도는 주로 2019년 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1월부터 주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루블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국내총생산 총량 지표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주민들의 신용대출이 지금까지 확대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리라고 보는 것이 가장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이다. 물론 러시아 경제상황에 타격을 주려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제재 연장은 국내총생산 감소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림 1] 국내총생산 총량 변화
(2011년 2/4분기~2019년 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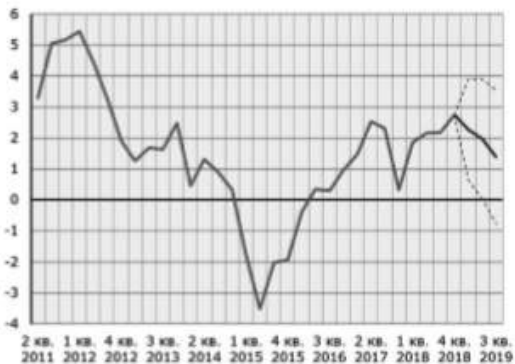


Рис.1. Динамика индекса физического объема ВВП, %

<표 1> 작년 해당 기간 대비 국내총생산 총량 증가 지표
(단위 %)

기간	예상	하한선*	상한선*
2019년 1분기	2.28	0.65	3.91
2019년 2분기	1.97	0.05	3.89
2019년 3분기	1.39	-0.76	3.54

* 신뢰도는 80%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 진단

[그림 2]에서 보듯이, 최근 6개월(2019년 4~9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4.9~5.3%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월부터 부가 가치세가 18%에서 20%로 오르고, 루블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빨라졌다. 이 외에도 소비자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현시점에서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은 확실히 사라졌으며 루블화 환율은 지엽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둔화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빠르게 루블화를 안정시키고 있고, 그 결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부추겼던 요인 중 하나였던 환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우리가 논의해보고 있는 2019년 이후 상황을 놓고 볼 때, 통화 수축이 발생할 위험도는 0.00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다. 따라서 <표 2>에서 보듯이, 향후 6개월은 물가상승률

[그림 2] 소비자 가격지수 변화(2015년 6월~2019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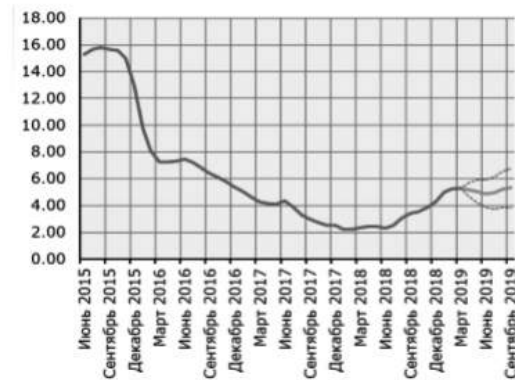


Рис. 2. Динамика индекс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

이 4~6.5%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4%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 국내 은행들의 목표임을 상기하자. 러시아 경제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는 4%에서 물가상승률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표 2> 작년 해당 기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단위 %)

기간	예상	하한선*	상한선*
2019년 4월	5.17	4.66	5.68
2019년 5월	5.04	4.21	5.89
2019년 6월	4.88	3.85	5.92
2019년 7월	4.93	3.73	6.13
2019년 8월	5.19	3.85	6.54
2019년 9월	5.31	3.83	6.77

*신뢰도는 80%

무역수지 진단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일정 정도 정체기를 거쳐 다시 2018년 9~10월에 급격하게 증가해 2014년 4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의 무역수지는 작년의 평균수준으로 환원됐다(15억 달러). <표 3>에서 보듯이, 앞으로 6개월 동안 140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무역흑자가 미미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감소는 무엇보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제재 연장 때문이다.

<표 3>에서 보듯이, 향후 6개월은 95~191억 달러 사이에서 무역흑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그림 3] 무역수지 변화(2015년 1월~2019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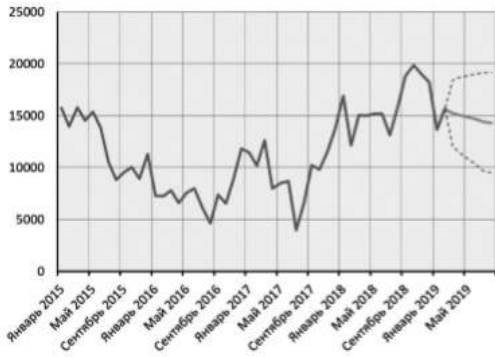


Рис.3. Динамика сальдо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млн. долл.

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리라는 증거가 된다. 무역수지의 흑자 폭은 러시아의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은행과 수출회사의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무역수지의 흑자 폭이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까지 수출에서 수입으로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0.00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표 3> 무역수지(단위 백만 달러)

기간	예상	하한선*	상한선*
2019년 3월	15,239	12,033	18,445
2019년 4월	15,063	11,397	18,729
2019년 5월	14,849	10,831	18,867
2019년 6월	14,674	10,321	19,027
2019년 7월	14,386	9,651	19,121
2019년 8월	14,319	9,517	19,121

*신뢰도는 80%

산업생산지수 진단

<표 4>에서 보듯이, 최근 4년 동안 산업생산지수는 20~30%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는 향후 6개월 동안 1.9~2.7% 범위 내에서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유용 광물 채굴량, 식료품 생산량, 음료 생산량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원목가공 분야와 제지제품 생산 분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생산 분야의 성장도 눈에 띈다.

산업생산지수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직물 분야,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제재 연장이 다.

신뢰도가 80%라는 점이, 2017년 11월과 12월에 그랬던 것처럼, 2019년 3분기까지 산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19년 1월 이후 산업생산지수의 최대 하한선은 -0.39%(표 4)이기 때문이다. 산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

[그림 4] 산업생산지수 변화(2015년 1월~201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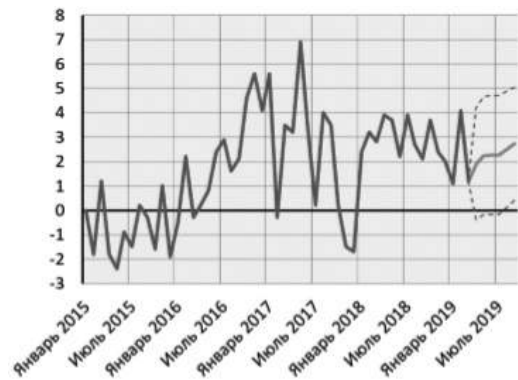


Рис.4. Динамика индекса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일 확률은 5~20%이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표 4> 작년 해당기간 대비 산업 생산 지표

(단위 %)

기간	예상	하한선*	상한선*
2019년 4월	1.91	-0.39	4.21
2019년 5월	2.25	-0.19	4.69
2019년 6월	2.27	-0.17	4.71
2019년 7월	2.27	-0.17	4.71
2019년 8월	2.49	0.10	4.88
2019년 9월	2.73	0.41	5.05

*신뢰도는 80%

- 세르게이 발렌테이(S. D. Velentey): 모스크바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 원제 : Прогноз основных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ндикаторов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до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май 2019 года
- 출처 : 플레하노프 러시아경제대학 2019년 5월 학술연구회(2019년 5월)

러시아 최신 상품·서비스 시장 발전 동향

세르게이 발렌테이

러시아 소매체인점의 옴니채널식 발전

2018년은 스태그네이션과 실질국민소득 감소(0.2%)라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상업 부문의 체인화와 재편 과정(표 1)이 지속된 해였다. 소매 판매량은 인플레이션과 예금유치를 통해 2017년 대비 2.6% 증가했다. 2019년 1월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돼 소매 판매량이 1.6% 상승한 가운데 실질국민소득은 작년 동기 대비 1.3%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매체인점의 판매량은 19.2% 증가했고, 총 소매 판매량에서 소매체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상회했다. 식료품 부문은 통상적으로 소매체인점의 비중이 이

보다 높은데, 그 수치는 40%에 육박한다(전년 35.7%). 러시아연방의 37개 연방주체에서 체인점의 비중은 러시아 평균치를 넘어섰다. 다게스탄 공화국과 체첸 공화국에서만 소매 체인점이 여전히 소매 판매량의 5% 미만이다. 체인화는 북부 지역(아르한겔스크 주, 코미 공화국)과 우랄 및 시베리아 지역, 소도시와 소읍(도시형 정착지)으로 계속해서 확대됐다. 예를 들면 마그니트(Magnit)는 총 8개 연방관구 중 7곳의 주거지 2,886곳에 매장 17,482개과 유통센터 37개가 있고, 상품 공급의 중앙화 수준은 90%를 넘었다. X5리테일그룹(X5 Retail Group)은 15개 자치관구에서 식료품 판매량 최대 허용치인 25%를 달성했다. 엠비데오(M.Video)와 DNS, 메트

<표 1> 전년 대비 러시아 실질국민소득, 소매 판매량, 소매 체인망 판매량 성장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국민소득	105,4	101,2	105,8	104,8	99,5	95,9	94,4	98,3	99,8
소매 판매량	112,8	115,9	112,1	110,7	110,5	105,2	102,8	100,6	102,6
소매 체인망 판매량 성장률	271,77	121,65	124,77	118,27	116,35	114,02	112,75	119,9	119,2

로캐시앤캐리(Metro Cash&Carry)는 모든 연방 관구에 체인망을 갖췄다.

2018년에는 체인망의 개점 성장세가 둔화되고 안정적인 공간적, 옴니채널식 발전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 X5리테일그룹의 판매고는 2017년에 25.5%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19.8%,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18.5% 상승했다. X5리테일그룹은 중기적으로 연 10%대의 판매고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수익 증대는 주로 매장 면적의 증가(18%)로 인한 것이다. 매장 2,297개가 문을 열었으며, 그 중 95%가 할인매장 형태다. 동일조건 매출(Like-for-Like Sales)이 3.7% 성장했다는 사실은 영업 활동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렌타(Lenta) 그룹의 수익은 2017년에 19.2% 증가했고, 2018년 1~9월에는 18.2%, 2018년 한 해 동안은 13.2%(4/4분기 증가세는 고작 6.6%) 상승했다. 렌타그룹은 2020년까지 매장 면적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데트스키 미르(Detsky Mir)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9.9%, 14.3%, 14.3%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위기를 극복하고 추가 자금이나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식료품 시장의 선두기업들은 반대 경향을 보였다. 슈퍼마켓 체인 디시(Diksi)는 2017년에 9.1%의 판매량 감소를 겪은 후 2018년 상반기에 4%, 2018년 1~9월에 18%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마그니트의 수익증가율은 2017년에 5.8%, 2018년 상반기에는 7.2%, 2018년 1~9월에는 7.7%,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8.2%를 기록했다.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시장의 체인망은 보다 더 역동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DNS그룹은 이미 2년째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엠비데오엘도라도(M.Video-Eldorado) 그룹의 통합 수익 성장률은 17.2%를 기록했고, 연 수익률은 17.7%에 달했다. 체인망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상업망과 자영업 대체를 통해 실현됐다.

하이퍼마켓에서의 선택 폭 감소와 가격 상승, '슈퍼마켓' 형태의 판매 활성화도 2018년의 주요 동향으로 볼 수 있다. '페레크로스토크'(Perekrestok)와 '카루셀'(Karusel), 렌타그룹의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스텝인숍 매장이 더욱 폭넓게 개설되고 있다('브리스톨'(Bristol)은 '딕시' 매장 내 개설된다). 그 결과 하이퍼마켓의 매출이 감소하고 보다 선택의 폭이 넓고 더 큰 규모로 프로모션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는 슈퍼마켓으로 거래량이 재분배됐다. 슈퍼마켓 체인 페레크로스토크의 판매 증가율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파토로치카를 넘어섰다(각각 23%, 18.1%). 페레크로스토크는 매장 122개를 신설했고, 하이퍼마켓 카루셀은 '클럽형' 슈퍼마켓 콘셉트로 개편됐다. 니즈니노브고로드의 체인점 미들볼가(Middle Volga)는 모스크바 지역에서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슈퍼마켓 체인 유로스파(Euro Spa) 또한 모스크바에서 급성장 중이다. 오상(Auchan)은 하이퍼마켓 포맷을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마그니트는 하이퍼마켓 포맷을 완전히 포기했다.

전국 규모의 체인망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매장에서 평균 구매 금액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X5리테일그룹의 평균 구매 금액은 2017년에는 234.9루블이었고, 2018년 말 현재 235.9루블로 실질

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마그니트그룹의 평균 구매 금액은 2018년 9월에 151.2루블에서 148.6루블로 1.8% 감소했다. 페레크로스토크, 카루셀, 마그니트, 엠비데오 등은 콘셉트 개편을 통해 평균 구매 금액을 유지했다.

M&A 활성화도 2018년의 주요 동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018년에 사프마르(SAFMAR)사는 체인망 엠비데오, 엘도라도, 테크노실라(Tekhnosila), 미디어 마르크트(Media Markt)를 통합해 슈퍼마켓, 할인매장, 온라인채널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디시의 슈퍼마켓 및 할인매장 체인과 주류체인 크라스노예이벨로예(Krasnoye i beloye)와 브리스톨을 통합하는 새로운 옴니채널 시스템 구축 과정이 시작됐다. X5리테일그룹은 슈퍼마켓 오케이(O'key)를 인수했고, 세지모이콘티넨트(Sedimoy kontinent) 매장 다수를 리브랜딩했다.

2018년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소매업의 변화를 꾀한 시기였다. 오상과 이케아(IKEA)는 소규모 잡화점 및 전문 매장 형태, 기존 유통센터를 둘러싼 밀집 성장모델에 주목했다. 메트로는 소상공인 서비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파솔(Fasol)' 프로젝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쇼핑센터 재정비와 컨셉 재편을 실시했다.

온라인 판매 채널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소매업 3.5%에서 4.1%, 식료품 부문 0.3%에서 1.5%)한 가운데 전국 체인망을 갖춘 기업들이 온라인 채널 판매를 발전시킨 것 또한 2018년에 눈에 띄는 경향이다. 그럼으로써 이들 기업은 상품 종류를 확대하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 구매 금액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온라인 마켓 perekrestok.ru의 평균 구매

금액은 약 3,500루블로, 오프라인 매장보다 7배 많다). 또한 온라인 채널은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교통 접근성이 불리한 소도시와 농촌으로 체인망이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은 대세가 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데트스키미르의 2018년 온라인 판매량은 88억 루블로, 총 판매량의 8%에 미치지 못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의 발전에는 서비스 인프라(무인택배함, 러시아 우정국과의 협업 등) 구축이 수반됐다.

동시에 온라인 부문에서는 통합과 합병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와 오존(Ozon)은 2018년 온라인 판매 시장의 2/3를 차지했고, 이들 기업의 판매 증가율은 70%를 넘어섰다.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원칙(도매 유통 기구 및 상품 수령 지점망 구축)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시장에는 오늘날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투자하는 마켓플레이스도 있다. 스베르방크는 2018년에 '얀덱스마켓(Yandex. Market)'의 주주가 됐고,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티몰(Tmall), 러시아직접투자기금, 메가폰(Megafon), 메일그룹(Mail.ru Group)이 참여하는 합작기업 형태의 마켓플레이스 구축이 시작됐다.

우리는 소매 체인망의 도매 및 소도매 시장 진출 추세도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소매 체인망 발전 트렌드라고 본다. 이는 체인점에서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업체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보너스) 허용치를 매출의 5%로 제한함으로써 가능해졌다(2016년 수정 연방법 381조). 이런 비용은 합의에 따라 소매가 할인에 반영됐다. 전국 규모의 체인망을 갖춘 업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좀 더 대규모 매입과 전국 도매유통 인

프라 구축을 통해 유통업자들보다 유리하게 소기업들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마그니트, 렌타, 디시 등이 작년에 이런 경향을 발전시켰다. 식품체인 마그니트는 2018년 1~9월에 도매 판매량을 1.07%에서 1.7%로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이 69.6%에 달했다. 마그니트는 최종소비자를 위한 소도매 상점망을 구축하고 유통센터로부터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매부서 '마그니트유통'을 개설했다. 2018년에 소도매 매장 '마그니트옵트(Magnit-Opt)' 15곳이 문을 열었고, 그 수는 18곳으로 증가했다. 마그니트옵트의 판매량은 작년 한 해 동안 10% 증가했는데, 이때 평균 구매 금액은 550 루블에 못 미쳤다. 이는 소도매 매장 형태가 최종소비자를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구매금액은 소매 매장보다 6배 많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소도매 매장의 평균 면적은 2,500㎡, 비식품 상품을 포함한 재고관리단위(SKU)는 총 1,600개였다. 참고로 2018년 렌타의 도매 판매량은 6% 증가해 214억 루블을 기록했고, 이때 주 단위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체인망만 렌타의 프로모션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 프로모션 메커니즘은 체인망과 생산업체 간 이해관계를 연결해주고, 이들 간 부가가치를 상업활동에 유용한 방향으로 재분배한다. 실현된 프로모션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는 동일조건 매출 및 구매 건수 감소로 이어진다(2018년 체인망 파토로치카의 사례에서 증명됨). 프로모션 메커니즘은 상업과 생산의 중간 통합 도구로, 이 메커니즘의 도입은 대규모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에 의한 매대 관리로 교체될 것이다. 프로모션 메커니즘의 실현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구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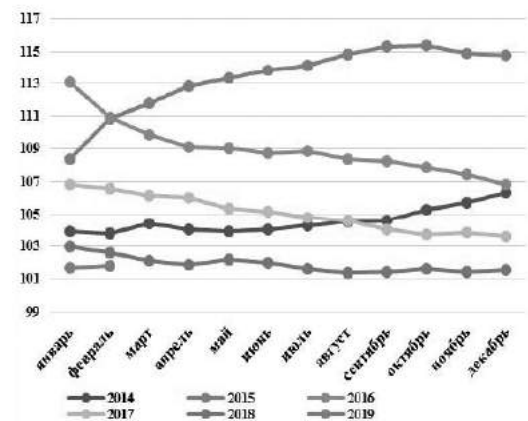
가 모종의 의존성을 얻고, 시장에서 규모가 명백히 축소되고 있는 소규모 상업 서비스를 거부하게 된다는 점이다.

2018년의 여러 추세 중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다수가 발전 컨셉을 재고하고 있는 브랜드 소매 체인망의 성장 둔화다. 이를테면 미라토르크그룹(Miratorg)은 온라인마켓에서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인프라 발전 계획도 수정했다. 오프라인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지셔닝과 온라인 채널 및 소기업을 위해 도매 발전을 결합하는 옴니채널식 소매체인점에 의한 시장 과점화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아동용품 시장 발전 추세

2013~17년 아동용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2%씩 성장해 2018년에는 5,220억 루블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성장세는 지속돼 시장 규모가 5,32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용품 시장의 80%는 아동복과 완구류, 신생아 용품으로 삼분된다. 아동용품 시장 구조

[그림 1] 전년 동기대비 완구류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에서 주요 판매 채널은 전문 매장과 하이퍼마켓, 슈퍼마켓이다. 현재 러시아 아동용품 시장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추세: 평균 아동용품 소비자가 상승 둔화

러시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재 도입 이후 아동용품 가격 상승률은 증가했으나, 2018~19년에는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줄어 들었다. 예를 들면 아동용 여름 신발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14년 1월에는 105.5%, 2015년에는 107.4%, 2016년과 2017년에는 111%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17~18년에 꾸준히 줄어들어 2019년 1~2월에는 101.6%를 기록했다. 아동용 여름 신발에 대한 소비자가격의 전월 대비 변화율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절성(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시기는 3월부터 5월이다)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용품 가격 상승률 둔화는 봉제완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그림 1). 201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봉제완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108.4%에서 12월 114.8%로 증가했고, 이때 9월과 10월에는 115%를 넘어섰다. 이 지표는 2016~18년에는 하락해 2019년 1월에는 101.7%를 기록했다. 2014~17년에는 봉제완구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가운데 2018년과 2019년 1~2월의 전년 동기 대비 봉제완구 소비자물가지수는 100.5%를 넘지 못했고, 2018년 3월과 7월에는 100% 미만이었다.

능직물 재질의 미취학 아동용 방한 외투에 대한 평균 소비자가격도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에서 111.6%로 증가했고, 2017년 12월에 102.4%로 하락했다. 이 지표는 2018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101.5%에서 102% 사이에 머물렀고, 2019년 2월에는 101.5%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지표는 8~9월과 3월에 증가하는 등 이 상품의 가격 변화는 계절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2017~18년에는 성장률이 2014~16년보다 훨씬 낮았다. 2018년 1~3월, 7월, 12월과 2019년 1~2월에는 전월 대비 지표가 100% 미만이었다. 즉,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초에 대부분의 아동용품(취학 여아용 치마, 취학 아동용 운동복과 청바지, 부츠와 옥스퍼드화, 공책, 책가방, 배낭,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 등)은 평균 소비자가격 상승률 둔화 혹은 하락을 겪었다.

- 두 번째 추세 : 가계 실질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절약 소비 모델로의 이동

국민소득은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러시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가계 실질가처분소득은 2017년 대비 0.1% 증가했으나, 이 증가율로도 소득이 지난 몇 년 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2019년 1월의 가계 실질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 아동용품이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들 상품은 소비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러나 가계 소득 감소는 충동구매 감소와 중고용품과 같이 보다 저렴한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

- 세 번째 추세 : 인구 구조의 변화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10.5%, 2018년에는 4.9%를 기록했다. 2019년 1월의 출생아 수는 2018년 1월 대비 10.4% 줄어들었다. 향후 몇 년간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아동의 수 및 연령 구조 변화는 아동용품 수요에 영향을 준다. 앞으로 몇 년 간 신생아 용품 수요가 줄어들고, 2012~14년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 6~8세 아동용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네 번째 추세 : 온라인 거래 확대

인터넷 상점을 통한 아동용품 거래 규모는 2015년에 8.1%, 2016년에 8.9%, 2017년에 10.4%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소비자 중 19%가 온라인을 통해 아동용품을 구매했다.

러시아연방의 의약품 시장: 평가와 전망

러시아연방의 의약품시장 소매현황을 점검해보면 본 부문의 여러 통계 지표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2019년 1월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의약품제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금액 면에서는 7% 이상, 규모 면에서는 약 2% 증가했다. 이 기간 판매고는 1,986억 루블, 판매량은 10억정이었다. 건강기능식품 가격이 크게 뛰었고, 이는 통계에 반영됐다.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모는 루블화 기준으로 약 10%(혹은 110억 루블) 증가했으나, 수량 면에서는 9%(혹은 5,900만정) 감소했다. 2019년 약국 화장품 매출은 2018년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약국 화장품 판매 규모는 루블화 기

준으로 약 3%(830억 루블) 줄었고, 수량 면에서는 11.6%(3,200만정) 감소했다.

상업용 의약품 부문의 동향을 평가해보면, 이 부문은 2019년 1월에 2018년 1월 대비 약 8%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연쇄 통계 지표 평가(올해 1월~작년 12월)는 상업용 의약품 시장 규모가 9% 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고가 의약품(1정당 500루블 이상) 부문의 비중은 2019년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해 40% 이상을 기록했다. 중저가 의약품(1정당 150~500루블)의 비중은 각각 0.4% 감소했다. 이와 같이 올해 1월에 중저가 의약품의 비중은 상업 의약품시장의 11.3%와 4.4%를 각각 차지했다.

2018년 의약품 부문의 특징은 주요 기업들의 관점에서 다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유명 기업들이 연간 러시아 국내 제약업체 순위에서 여전히 선두에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매시장에서 1위 러시아 브랜드는 '카고첼'(Kagottsel)이고, 1위 해외 브랜드는 '뉴로펜'이다. 상처 치료와 구급약품 생산업체에서는 '폴하트만 AG'(PAUL HARTMANN AG)이 1위를 차지했으며 소매시장에서 처방의약품 판매 1위인 러시아 기업은 '베르텍스'(VERTEX)였고, 비처방의약품 판매 1위인 러시아 기업은 '오티시팜'(Oticifarm), 공공부문 의약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러시아 기업은 '비오키아드'(Biokad), 같은 부문의 1위 외국 생산업체는 '사노피'(SANOFI)였다. 혈압계 생산업체 중 1위는 'A&D', 화장품 브랜드 1위는 '리브레덤'(LIBREDERM)이었고,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중에서는 '에발라르'(Evalar)가 1위를 차지했다.

다른 한편, 2018년에는 제약업체들 간 인

수·합병이 실시됐고, 이는 통계 수치에도, 세계 시장의 발전 방향에도 반영됐다. 2018년에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과 미국의 화이자(Pfizer)는 협상 끝에 양사의 비처방의약품 사업부를 통합해 합작기업을 출범시켰고, 이 합작기업의 지분 68%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귀속됐다. 협정 서명을 위한 기한은 2019년 7~12월로 제한됐다. 새로운 합작기업은 의약품 및 백신 개발·생산과 비처방의약품 부문으로 나뉘게 될 계획이다. 이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은 12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일본의 다이쇼제약(Taisho Pharmaceutical Holdings Co)은 2018년에 해외사업 확장 차원에서 미국의 브리스톨마이어스스콧(Bristol-Myers Squibb Co)의 프랑스 소비자사업부 UPSA(다팔강(Dafalgan), 에페랄강(Efferalgan), 페르벡스(Fervex) 등 진통제와 독감백신, 영양제 제조)를 인수하기 위한 거래에 한발 다가섰다. 이 거래를 제외하고도 2018년 비처방의약품의 총 판매고는 2017년보다 27% 증가한 4,2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러시아연방 여러 대도시에서 다케다제약(Takeda)의 의약품의 외래처방 비율이 2018년

에는 2.69%, 2019년에는 2.83%로 증가하며 다케다제약은 또다시 외래 처방 면에서 1위가 됐다. 작년 초에는 다케다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나지빈(Nasivin)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닥터레디스(Dr. Reddy's)가 이 부문의 선두기업이었다. 2014~17년까지는 다케다제약이 러시아 외래 처방의약품 부문에서 선두 입지를 유지했다. 이때 1~25위 기업이 외래처방의 47%를 차지하나, 이 그룹의 점유율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그룹 내부적으로는 처방 비중의 재분배로 이어지는 변화가 있다.

2018년 의약품 시장의 통계 지표를 상대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2). 2017년 대비 2018년 의약품 판매 금액 성장률은 3.1%(9,699억 루블)를 기록했다. 판매량 면에서 성장률은 이보다 약간 낮은 2.4%(52억정)이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개선, 바디케어 목적의 병행약물(소위 헬스케어 제품) 판매고는 2018년에 2017년 대비 4.2%(963억 루블) 감소했다. 병행약물의 판매량은 1.7%(5억 2,500만정) 감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모는

[그림 2] 2017년 대비 2018년 시장 부문별 판매량 절대편차(100만 루블, 정)



루블화 환산치로는 3%(약 540억 루블) 증가했고, 수량 면에서는 5%(3억 2,780만정) 하락하는 등 금액 면에서는 성장세를, 수량 면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화장품도 상황은 비슷했다. 판매고는 0.6%(444억 루블) 증가했지만, 판매량은 1.7%(1억 8,200만정) 감소했다.

‘판매 폭발’이 있었던 2018년 마지막 주의 상황이 흥미롭다. 의약품 시장이 발전했던 이 시기에는 활활 타오르다가 약화되고 희미해지는 태양 홍염과 같은 ‘폭발적인 판매 두각’이 있었다. 2018년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된 의약품 규모는 금액 면에서는 34.7%, 수량 면에서는 31.3%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고는 루블 기준 42.5%, 판매량은 19.4% 증가했다. 새해를 앞두고 약국 화장품의 판매 규모도 증가해 판매량은 26.4%, 루블 기준 판매고는 3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8년 마지막 주 ‘병행약물’ 판매고는 루블 기준 36.2% 증가했고, 판매량은 10.8% 늘어났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과 병행약물 판매 규모 증가는 급격한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시장 전망을 살펴보자. 2024년경 세계 비처방의약품 시장 규모는 1,7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성장의 주요 동력은 노인 인구 수 증가에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진통제 등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2018~19년 초 러시아 승용차 소매 시장 분석

러시아 승용차 소매시장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2018년에는 2017년보다 꾸준한 성장세가 목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승용차 판매량은 1,800,591대로, 2017년 대비 12.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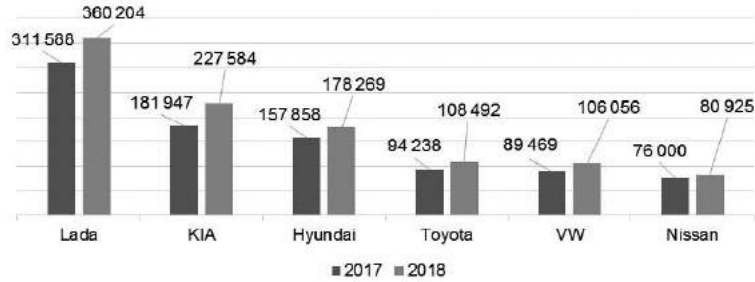
[그림 3]은 자동차 브랜드별 연 판매량을 보여준다(그 중 러시아 국산 브랜드인 라다(LADA)가 1위다). 올 2019년은 부가가치세가 18~20% 증가하고 미국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할 해로, 이는 몇몇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다소 후퇴가 가능하긴 하지만) 점진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초 자료 또한 다의적 전망을 확인해 준다. 2019년 1~3월에 러시아에서는 전반적인 판매량 감소(2018년 동기 대비 0.3% 감소. 2019년 1~3월 판매량은 391,650대, 2018년 1~3월 판매량은 392,920대)가 보인 가운데 2019년 3월의 자동차 시장 성장세는 2018년 3월 대비 1.8%를 기록했다(유럽비즈니스협회(AEB) 자료). 다시 말해 올해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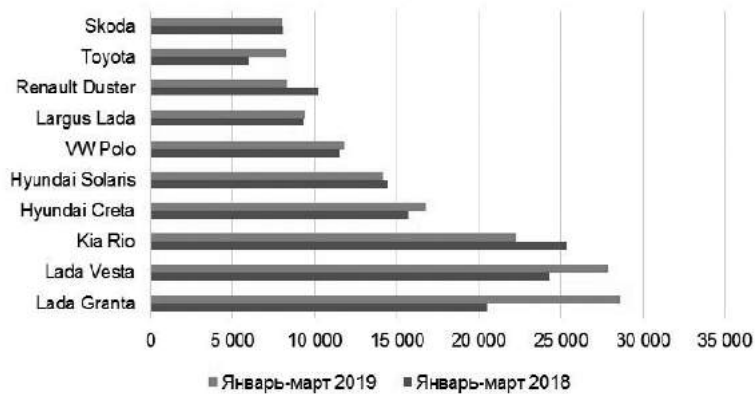
2019년 1/4분기에는 라다 그란타(Lada Granta), 라다 베스트(Lada Vesta), 기아 리오(Kia Rio), 현대 크레타(Hyundai Creta), 현대 솔라리스(Hyundai Solaris) 등이 판매량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그림 4). 2018년 시장 점유율은 아프토바즈(Avtovaz, 20%), 기아(12.6%), 현대(10.0%), 르노(7.6%), 도요타(6.0%), VW그룹(5.9%) 순으로 높았다. 2018년의 대표적 추세는 자동차 대기업들의 B2B 판매 증가다. 2019년(1/4분기) 시장 점유율은 다소 변화했다. 아프토바즈의 점유율이 21%로 증가했고, 기아자동차의 점유율 또한 (13.5%)로 상승했다.

판매량 면에서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으면서 10위권 안의 기업들보다 2018년 성장률이 높

[그림 3] 2017-2018년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량(대)



[그림 4] 2018-2019년 1-3월 러시아 승용차 TOP10 판매량 추이(대)



있던 자동차 기업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들 중에는 혼다(110%, 2,435대에서 5,113대로 증가), 중타이(192%, 1,088대에서 3,175대로 증가), 미쓰비시(87%, 24,325대에서 45,391대로 증가)가 있다.

2019년 1~3월 판매량 자료를 살펴보면 성장률 면에서는 지리자동차(313%, 2018년 1~3월 판매량 379대, 2019년 1~3월 판매량 1,566대), 하발자동차(195%, 2018년 1~3월 판매량 492대, 2019년 1~3월 판매량 1,452대), 지프자동차(80%, 같은 기간 판매량이 284대에서 511대로 증가)가 우세하다.

2018년 러시아 판매 성장률이 감소한 브랜드로는 리판(-11%), 메르세데스 벤츠(-2%), 체리(Chery, -5%), 닷선(-59%), 쉘보레(-6%), UAZ(-1%)가 있다. 2019년 1~3월에 일부 브랜드는 판

매 성장률이 대폭 감소했다. 리판의 판매 성장률은 59%, 쉘보레는 13%, 시트로엥은 36%, 푸조는 35%, 렉서스 21%, 포드가 39%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선호 브랜드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승용차 판매량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40개 연방주체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소비 수요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추코트카(-40%)였고, 야로슬라블주와 로스토프주(-19%), 모스크바(-13%), 상트페테르부르크(-13%), 니즈니노브고로드주와 사라토프주(-12%), 타타르스탄(-11%)에서도 판매량이 감소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2018년과 비슷한 추세(마리엘 공화국, 레닌그라드주 및 노브고로드주)를 보였다. 예를 들면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 승용차

판매량은 62% 증가했고, 케메로보주는 43%, 노보시비르스크주는 35%, 한티만시스크 자치구는 15%, 튜멘주는 13%, 모스크바주는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즉, 지역별 판매량은 상이하다. 인구 천 명당 자동차 판매량이 러시아 평균보다 약 2배 이상인 지역들도 있었다.

중국산 자동차 판매 분석도 흥미롭다. 예를 들면 2019년 2월에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2,365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것이다(그 중 하발자동차가 2019년 3월에 전년 동기대비 판매량 증가율 253%를 기록하며 선두에 있다).

중국 자동차는 러시아 소비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적다.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비자 평가에 따른) 품질과 안전성이 다른 생산업체에 여전히 크게 뒤진다. 둘째, 가격 수준 또한 다른 생산업체의 동급 차량과의 경쟁을 건디지 못한다. 셋째, (러시아에서의 낮은 판매량과 관련해) 서비스 센터망이 낙후하다. 2018년에 러시아 시장에서 40만 6,600대가 팔린 한국산 자동차 판매를 근거로 들어보겠다. 이때 기아와 현대의 작년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4%를 기록했다. 비교하자면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만 5,060대에 불과했다. 넷째,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조립공장이 부재한다는 사실 또한 판매율에 영향을 미친다(지금까지는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즐라토우스트, 노보우랄스크, 타간로크,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에 있는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완전 조립 생산하는 형태만 활용됐다).

한편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잠재력은 막대한데, 왜냐하면 하발자동차가

2019년에 툴라주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현지화율도 꾸준히 증가해 연간 자동차 15만대가 생산될 계획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전자 상거래 규모의 증가다.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러시아에서 온라인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다. 따라서 부품뿐 아니라, 중국 자동차 주문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결 2.0 : 예정된 불확실성 속의 연료 시장

2018년 12월 25일에 석유·가스부문과 직결된 세법이 개정됐다. 세제개편안은 첫째, 2024년까지 수출관세 폐지, 둘째, 광물생산세 인상, 셋째, 자동차연료 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금 정책(Tax Maneuver)과 관련이 있다. 관련 법안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서명했고, 법안은 발효됐다.

언급된 수정사항 이외에도 외부 변동이 러시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줄 댐퍼(damper) 메커니즘의 파라미터와 공식이 변화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특히 기업들은 도매가가 하한선 아래로 하락했을 때 충격 완화를 위한 공제(환경기준 5등급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러시아 국내에서 판매 시 평균 도매가의 -10%)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하한선이 폐지됐다.

그밖에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추가 보상(ΦАВ, 자동차용 휘발유의 댐퍼 수치가 0을 초과하는 경우 5,600루블, 0 이하인 경우 0)과 디젤 연료에 대한 추가 보상(ΦДТ, 디젤 연료의 댐퍼 수치가 0을 초과하는 경우 5,000 루블, 0 이하인 경우 0) 등 추가 보상이 도입됐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댐

퍼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19년 1/4분기에 정유회사들은 손실을 입었고, 휘발유 생산은 이윤을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댐퍼 메커니즘이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구체적인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은 정유업계의 손실로 이어졌는데, 산출 '보조금'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이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과 관련해 3월 말에 러시아연방 정부와 석유기업들은 연료가격 동결에 대한 합의를 2019년 7월 1일까지 연장했다. '동결'에 대한 대가로 합의 파라미터 또한 수정됐다. 첫째, 시장에 대한 연료 공급량을 2018년 동기 대비 3% 늘려야 하는 소위 '+3% 기준'이 폐지됐다. 둘째, 톤당 조건부 산출 휘발유 가격(Ца6вп)이 55,000루블에서 51,000루블로 하락했고, 톤당 조건부 산출 디젤 연료 가격(Цдтвп)은 50,000루블에서 46,000루블로 하락했다(즉, 기존 공식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석유기업들은 댐퍼 메커니즘에 따라 높은 플러스 공제액을 받을 것이다).

여러 수정과 합의 끝에 최선과는 거리가 멀고 심각한 리스크마저 수반하는 안이 선정됐다. 보조금 계산 공식이 예측하기 어려운 파라미터 투성이인데다가 수직통합형 석유 기업의 최종 공제액이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된 것이다. 그밖에 이 안은 세 가지 리스크를 감추고 있다.

- 리스크 1. 인위적 기준점.

댐퍼는 수출대체지표(netback, 순가격)를 수정한 것이다. 댐퍼 메커니즘은 도매 시장의 주요 기준점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이 메커

니즘은 새로운 기준점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순가격이 오르면 동일 수준은 아닐지 언정 보통 도매가도 오른다. 순가격이 크게 떨어질수록 도매가도 급격히 상승한다.

모든 석유기업이 내수 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외부 시장에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즉시 내려진다. 순가격은 즉시 계산될 수 있고, 이를 위한 모든 자료가 있으며, 즉석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가격은 좋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댐퍼 수치 또한 월 평균치에 근거해 계산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차와 적절한 가치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변동하는 시장의 세금 공제액을 감안하기란 어렵다. 이와 같이 주요 리스크는 댐퍼 메커니즘이 기준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 리스크 2. 기회주의적 행동.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리스크가 있다. 댐퍼 메커니즘의 파라미터는 도매가 하락에 대한 인센티브가 문자 그대로 부재하도록 설정됐다. 댐퍼 수치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 기업들은 내수 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거래로부터 추가 이익을 취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 댐퍼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내수 시장을 통한 보상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 댐퍼 수치가 0이 되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휘발유와 디젤에 대한 댐퍼 수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은 도매가 하락에 대한 추동력 형성을 어렵게 한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주요 과제는 최대한의 이윤 창출이다. 댐퍼는 순가격이 산정가에서 상한선 사이의 가격폭 안에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가 될

것이다. 휘발유에 있어 이 가격폭은 51,000-56,000루블이다.

순가격이 가격폭 안에 있으면(예를 들어 순가격이 톤당 55,000루블이라고 가정해보자), 댐퍼 수치는 5,760루블이 될 것이다. 순가격에서 이를 제하면 49,240루블이 된다. 댐퍼 메커니즘의 개발자들은 기업들이 연료를 판매하면서 이런 수치를 지향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다.

지배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사실 기업은 가격이 가격폭 상한선 아래에만 있다면 톤당 공제액 5,760루블을 받을 것이다. 즉,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격폭 상한선 근처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순가격 수치가 가격폭 미만이면 상황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긴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다. 순가격이 47,000루블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댐퍼 수치는 -2,400루블이고, 최종 순가격은 49,400루블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합리성의 마법이 시작된다. 세금 공제액으로부터의 손실을 낮추기 위해 가장 유리한 전략은 가격 상승이다. 게다가 가격 하락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데, 왜냐하면 첫째, 마이너스 공제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댐퍼와 댐퍼를 0으로 만드는 하한선이 별도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만한 온갖 추동력이 실현되는 것이다.

- 리스크 3. 전화법(法)과 석유 기업들과 규제 기관과의 전쟁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보는 극도로 높은 수출 관세 설정이라는 위협을 골자로 하는 규제 기관들과의 협성 과정에서 근절될 것이다. 그

럴 경우에 기한도, 댐퍼 메커니즘 포맷에서 발생하는 행정 리스크도 문제가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규제 기관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출 허가제 도입안이 검토 중이며, 시장은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유 및 소매업계가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리스크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보수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 거래일마다 댐퍼 수치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종 공제액은 일일 지표의 총합으로 계산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리스크 1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이 방법은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별도로 계산하고 휘발유에 대한 추가 보상과 디젤 연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폐지하며, 댐퍼 하한선을 다시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댐퍼가 될 경우 공제액이 0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하한선 수준으로 낮추는 데 추동력이 부여된다. 이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왜냐하면 (디젤 연료와 같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플러스 댐퍼가 취소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휘발유 AI-92에 대한) 마이너스 공제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휘발유와 디젤 연료의 산정가 파라미터를 주기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조치를 통해 리스크 3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동 조절 장치와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메커니즘(리스크 2)이 구축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댐퍼 산정 공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리스크를 한 차례 해결해 줄 뿐이다. 10%가 곱해

진 순가격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상품 원자재 거래소의 도매가를 댐퍼 산정을 위한 기반으로 들어 이들의 차이의 절반을 댐퍼 수치로 활용한다면, 기준점의 효율성 문제도,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 문제도, 자동성 문제도 해결된다.

정부가 정유업계와 소매업계 모두의 충분한 마진 보장 도구로 여긴 댐퍼 메커니즘은 현재

작동하지 않는다. 사실상 정유업계는 한편으로는 현 세금 정책과 예산 입맛을 줄이고 싶지 않은 정부에 종속됐다. 다른 한편으로 소매업계는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번역: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세르게이 발렌테이(S. D. Velentey): 모스크바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 교수
- 원제 : Современные тренды развития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 출처 : 플레하노프 러시아경제대학교 시사동향 제4호(2019년 4월)

Russia Policy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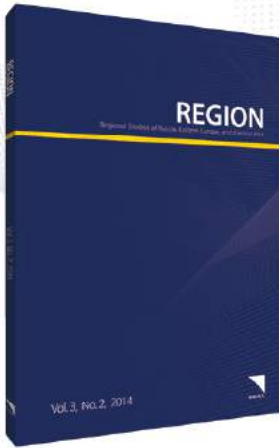
러시아 폴리시 리뷰



**PLEKHANOV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
Founded In 1907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2019

Vol.3 | No.2 Summer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